

“민간백신, 외국인은 외교관과 비영리단체만 접종”

KADIN “외국인 근로자 백신 접종 건의에 긍정 응답”

보건부 장관령 전문 확인결과 외국인근로자 (TKA- Tenaga Kerja Asing)에 대한 백신접종이 명확치 않다.

본지가 코로나19 대책본부 사이트에서 2월 27일 확인한 보건부 장관령 전문 확인결과 민간 백신접종은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외국인 비영리단체만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다. 코로나19 전염병 민간 백신접종(program vaksin mandiri)에 관한 보건부 장관령 2021년 제 10호 10조에는 “Pasal 10 Perwakilan negara asing dan organisasi nirlaba internasional yang sedang bertugas di Indonesia dapat mengikuti

pelaksanaan Vaksinasi Program atau Vaksinasi Gotong Royong. 제 10조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는 외국인 외교관 또는 비영리단체장도 상부상조(Gotong royong) 백신 또는 민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장관령에는 외국인 근로자 TKA(Tenaga Kerja Asing)와 WNA(Warga Negara Asing)라는 표현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백신접종이 해당없다.

2월 27일(토) 오전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KADIN(한국인 대표)에서는 “보건부측에 외국인 근로자 TKA백신 접종을 건의했지만 장관령 서명이후라서 업데이트 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도 내주초에 당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백신접종에 관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KADIN(한국인 대표)은 “28일까지 백신접종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 업체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이 3월 7일 까지 전달될 것이다. 이번에 못하더라도 2차 신청이 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kes)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와 가족, 외국인도 정부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상부상조(Gotong royong) 민간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고, CNN INDONESIA 등은 이를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비영리단체장만 해당돼 기업체 근로자 민간백신 접종의미가 퇴색해 보인다고 기업인들은 전했다. 한편, 기업체에서 백신구입을 부담하는 근로자를 위한 민간 백신접종에 중국산 시노팜(Sinopharm) 백신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루훗 판사이탄 혜택투자조정부 장관은 중국산 시노팜(Sinopharm) 백신이 3월에 인도네시아에 수입될 것이며, 이 백신은 근로자를 위한 민간 백신 접종(Vaksinasi MANDIRI)을 위해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인포스트 COVID-19 취재반. 언론총합>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KADIN에서 주관하는 민간백신 접종 프로그램 포스터>

MEKANISME VIRTUAL POLICE AWASI PENGGUNA MEDSOS

LIPUTAN 6
Berita Politik Internasional dan Nasional
Liputan6.com

CARA KERJA

- 1. Temuan Unggahan Tulisan/Gambar Berpotensi Langgar Pasal Pidana
- 2. Petugas Screenshot/Tangkapan Layar Unggahan Itu
- 3. Dikonsultasikan dengan Tim Ahli: Ahli Pidana, Ahli Bahasa & Ahli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ITE
- 4. Bila Dinyatakan Langgar Pidana, Dilakukan ke Direktur Tindak Pidana Siber Bareskrim Polri atau Pejabat yang Ditunjuk untuk Pengesahan
- 5. Lalu, Virtual Police Alert/Peringatan Dikirim secara Pribadi ke Pemilik Akun/Pengguna Medsos
- 6. Melalui Direct Message/DM agar Pemilik Akun Tak Merasa Terhina dengan Virtual Police
- 7. Dimohon Segera Hapus Unggahan dalam 1x24 Jam
- 8. Peringatan 2 kali, bila Tak Juga Dipatuhi, Pemilik Akun Dipanggil untuk Klarifikasi
- 9. Namun, Penindakan Langkah Terakhir Penanganan Kasus Pelanggaran UU ITE

Tujuan Ciptakan Media Sosial/Medsos Bersih, Sehat & Produktif

Kurangi Hoaks & Post-Truth/Pasca-Kebenaran/Kebobongan Dipercaya

Hindari Saling Lapor Terkait Penggunaan Medsos

Edukasi Warganet: Opini/Konten Dianggap Berpotensi Langgar Tindak Pidana

Tidak Subjektif, Peringatan Melalui Kajian Mendalam Bersama Para Ahli

생각없이 SNS 펴 나르면 위험 신정보통신법 강화



생각없이 SNS 펴 나르다 문제가 될수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유언비어와 백신 유언비어, 사라법 위반자에 대해서 당국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2월 19일 신정보통신법(UU ITE)에 대한 시행령 회립공문(Kapolri Nomor SE 2/11/ 2021)을 발령했다. 경찰은 디지털 공간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 고발이 늘어나고 또한 형평성

있는 법적용에 논란이 많았다. 이에 경찰당국은 SNS 이용자에 대한 자율 규제를 위해 법적용 원칙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

경찰청장은 신정보통신법(UU ITE) 시행령에서 “소셜미디어는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소셜미디어 이용자간에 비방·방지를 위해 조치가 께 뉴스를 차단하고 사전 조치한다”면서 “또한 경찰 사이버수사팀은 경고와 조치가 주관적이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법 적용 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신정보통신법(UU ITE)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법 위반 대응》

1. 이용자는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난 온갖 문제를 알아야
2. 이용자가 디지털 공간 사용 규칙, 사회적 영향을 인식해야
3. 가상 경찰은 이용자에게 디

지털 공간 오용에 대한 조기 경고

4. 디지털 공간 오용 신고를 받는 경찰은 혐의를 조사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
5. 경찰 담당자는 SNS 때문에 분쟁 중인 당사자의 법적인 문제 해결 중개자 역할
6. 경찰청 범죄과 사이버 수사팀은 사실을 조사하고 위법사항 결정
7. 법적인 문제는 형평성 있게 적용하고 해결
8. 양측 분쟁은 우선 화해로 문제 해결 원칙. 그러나 SARA(종족, 종교, 인종, 사회단체) 위법과 극단 분리주의 위법사항은 반드시 법적 책임
9. 심각한 용의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10. 법원에서 수사팀은 검찰과 함께 협상으로 해결하게 한다.
11. 디지털 공간에 대한 위반 사건 조사는 단계적으로 감독

《소셜 미디어 단계별 조사》

1. 경찰청 범죄과 사이버 수사팀은 법 위반성 있는 내용을 검색
2. 사이버수사팀은 SNS상에 글이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 보관
3. 수사팀은 정보통신 전문가, 언어 전문가를 통해 SNS 위반 내용 조사
4. SNS내용이 법을 위반하면 수사팀은 경찰청 범죄과 사이버 수사팀장에게 보고
5. 수사팀은 소셜미디어 계정 소유자에게 경고
6. 수사팀은 가상 경찰을 통해 SNS 계정 소유자에게 경고 메시지 전달
7. 메시지 내용은 계정에 업로드한 글이나 사진을 48시간내 삭제 요청
8. 2차 경고이후 계정 소유자 소환
9. 정보통신법 위반자 처벌 조치

COWAY

CHANGE YOUR LIFE

WhatsApp 및 전화 문의 | 0811 9294 114 (한국어 상담)
Email 문의 | koreandesk@coway.id

Website | www.coway.id
Instagram | @coway_id

**2021년
프로모션 진행 중
한국어 구매
상담드립니다!**

**OMBAK CHP-7310R
냉온 RO 정수기**
월 400,000 Rp. x 60개월
월 500,000 Rp. x 36개월

**STORM AP-1516D
15평형 공기청정기**
월 220,000 Rp. x 60개월
월 270,000 Rp. x 36개월

**BREEZE AP-1018F
10평형 공기청정기**
월 200,000 Rp. x 60개월
월 240,000 Rp. x 36개월

고용창출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은?

외국인 근로허가 중국 35,781명, 일본 12,823명, 한국 9,097명 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부령 (PP) 34호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장관 또는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술이전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현지인 근로자를 지정해야 한다.
-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자로서 현지인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계약이 끝나면 귀국시킨다.
- 회사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받도록 등록해야 한다.
- 회사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겸직해서는 안 된다.
-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관리적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부령(PP) 제34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를 규정했다. 이것은 고용창출법(옴니버스 법)에 관한 시행령이다.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많은 의무가 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 (RPTKA)

제6조 1항은 외국인근로자(이하 TKA)를 고용하는 모든 TKA 고용주는 장관 또는 임명된 공무원이 승인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에서 (1)과 (2)에서 언급된 TKA 고용주는 RPTKA 허가에 따라 TKA를 고용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의무사항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인도네시아 국민 근로자를 기술 이전 및 전문 지식 이전을 위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담당으로 지명한다.

2)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직위에 따라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시켜야 한다.

3)근로 계약이 종료 된 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국으로 돌려 보

낸다.

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도네시아어 교육 및 훈련을 시켜야한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직책은 -이사 및 위원(direksi dan komisaris) -대표 사무소장(kepala kantor perwakilan) - 재단 지도자 관리자 및 감독자(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yayasan) - 임시 근무자 (TKA yang dipekerjakan untuk pekerjaan bersifat sementara)

5)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 사회 보장 프로그램(program jaminan sosial nasional bagi TKA)에 등록해야 한다.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적어도 산업 재해 위험 유형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paling sedikit

menjamin perlindungan untuk jenis risiko kecelakaan kerja)

3. 외국인 업무 금지사항

정부 시행령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사항도 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 직위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없다. 제11조에는 1) 인력관리적 고용은 금지한다 2)인사 담당직은 관련 부처 기관장 의견을 받은 후 장관이 결정한다.

한편, 노동인권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인도네시아에 근무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35,781명, 일본 12,823명 한국 9,097명, 인도 7,356명, 말레이시아 4,816명 순이다.

<경제부>

| Country | Number of Foreign Workers |
|---------------|---------------------------|
| China | 35,781 |
| Japan | 12,823 |
| Korea Selatan | 9,097 |
| India | 7,356 |
| Malaysia | 4,816 |

(Data Kemenaker, Mei 2020)

민간 백신 접종, 시노팜 백신 맞는다… 빠르면 3월부터

시노팜 "임상3상에서 79% 효능과 항체 양성을 99.52%" 발표..브라질은 50%대 전국민 70% 백신 접종 총력… 근로자와 외국관 백신접종 허용

기업체에서 백신구입을 부담하는 근로자를 위한 민간 백신접종 중 중국산 시노팜(Sinopharm) 백신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루훗 판사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중국산 시노팜(Sinopharm) 백신이 3월에 인도네시아에 수입될 것이며, 이 백신은 근로자를 위한 민간 백신 접종(Vaksinasi MANDIRI)을 위해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지난 25일 2021년 경제 전망 (Economic Outlook 2021) 세미나에서 "3월에 2 백만 회분이 수입될 것이지만 우리의 희망은 4월, 5월, 6월, 7월까지 총 1,500 ~ 2천만 회분에 달할 것"이라고 주요 언론은 전했다.

중국산 Sinopharm 백신 인도네시아 수입 계획은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결정되었다고 루훗 장관은 말했다.

루훗 판사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우리에게 가까운 대상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다. 또 한 Sinopharm 백신은 정부의 백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백신을 민간 백신

에 배정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민간 백신에는 정부가 진행 중인 Sinovac백신과 AstraZeneca, Novavax, Pfizer 백신을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정부가 허용한 Sinopharm 백신과 Moderna 백신만 접종이 가능하다.

Sinopharm 백신은 수입일정이 잡혔지만 Moderna 백신은 협상 단계인 것으로 밝혀져, 당분간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이르면 3월부터 Sinopharm 백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시노팜·시노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두 백신에 대한 효능과 공급 지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WHO는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두 백신은 이르면 3월쯤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백신 개발사 시노팜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정부가 조건부 사용을 승인한 당시 자사의 백신

신이 임상3상에서 평균 79% 효능과 항체 양성을 99.52%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노팜 자회사인 베이징생명과학제품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시노팜의 CNBG 베이징의 비활성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백신 접종 이후에 안전성을 보여줬으며 코로나 19에 대한 보호 효과는 79.34%였다고" 말했다.

이 백신은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요르단, 페루,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에서 임상 단계에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시노팜 백신이 86%의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후 지난달 1월 30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첫 접종을 승인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하면 효과가 50.4%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나왔다.

전국민 70% 백신접종 총력… 근로자 민간 백신접종 허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국민 70% 백신접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70%인 총 181,554,465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루훗 장관은 "백신 준비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가능하다. 다만 접종 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전 국민 접종에 대해서 보건부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칭찬했다.

루훗 판사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의 업무 방식은 매우 좋다. 왜냐하면 현재 매일 수십 만 명이 예방 접종을 받기 때문이다. 이 수치를 유지한다면 3월에 일일 500,000명, 4월에 일일 700,000명으로 7월에는 7 천만명이 접종할 것으로 확신하고, 7000만 명에 예방접종은 정말 중요한 목표다"고 밝혔다.

Joko Widodo 대통령은 민간 백신 접종에 필요를 이해하고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도록 명령했다고 루훗 판사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밝혔다. "집단 면역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정부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부 장관은 기업체 근로자 백신접종을 위한 장관령을

지난 2월 24일 서명하고 26일 발표했다.

CNN INDONESIA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근로자 민간 백신접종은 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이 서명한 코로나19 전염병 백신 접종에 관한 2021년 보건부 장관 규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다.

KADIN 1차 백신접종 접수 마감 2월28일(일)까지 재 연장… 기업부 민간백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이 주관한 상부상조 민간백신 접종(program vaksin mandiri atau vaksin gotong royong)계획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2월17일자 한인포스트)되었다가 26일 보건부 발표에는 외교관과 비영리기관원만 포함되었다.

하지만 기업체를 위한 민간 Covid-19 예방 접종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가족도 접종 혜택이 3월1일 까지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은 민간 백신접종 신청을 마감을 2월 28일까지 재 연장하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접종 신청 기업은 아래의 링크

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 링크 : <https://vaksin.kadin.id/>

- Hotline Vaksinasi : 081219173177 / 081296187177 / 081296187277 / 081282198977

- 등록 마감 : 2021년 2월 28일(일)

한편, Erick Thohir 공기업 부 장관은 상부상조 민간 백신은 750만 회 분이 필요하다고 2월 25일 말했다.

애리 장관은 25일 CNBC 경제 전망에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KADIN에 따르면 백신접종에 신청 등록한 회사가 6,644개에 달한다. 우선 750만 회분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디 보건장관은 2월 26일 금요일 성명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국제 비영리 단체의 대표자도 백신 접종 프로그램인 '상부상조 민간백신 (program vaksin mandiri atau vaksin gotong royong)'에 적용될 수 있다. 민간백신은 법인 또는 사업체가 자금을 부담하여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포스트 COVID-19 취재반. 언론종합>

대통령, 코로나19 교사 예방접종 관찰 7월 새학기 개강 목표

조코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남부 자카르타에 있는 SMA 70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에게 COVID-19 백신 투여 현장을 방문했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와 나디엡 마카립 교육문화부 장관,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이 동행한 대통령은 11시 10분에 학교 건물에 도착했다.

자카르타 전역에서 온 교사, 강사, 기타 교육 종사자들로 구성된 650명의 공무원들이 26일 학교 건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접종받았다.

교사, 강사, 교육 종사자들은 14일 후에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크레타리아 프레지던트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2021년 2학기부터 학교와 대학이 정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교육자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코위는 6월까지 최소 500만 명의 교사와 강사를 백신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2단계 접종은 노인, 공무원, 시장 상인, 언론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시작됐다. SMAN 70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 대통령이 2월 24일 수요일, 자카르타에 SMAN 70 주립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교사들에게 투여하는 것을 곧 끝내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

인도네시아투자자문센터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투자자문. 소송. 기업법무. 인허가. 부동산. 자원. 국적. 지식재산권

Tel. 021-525-5959, 527-2422

www.indonesialawyer.id

대표변호사 이승민(YI SENG MIN, SH., MH.)

HP.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203,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무료 법률 및 투자상담(Free Legal & Investment Consulting)

- 화요일 오후 2시~4시 Jakarta KOTRA 사무실
Jalan Jenderal Sudirman No.28, GKB1 빌딩 8층. Tel. 021-5790-5230
- 주일 오전 10시 15분~11시 45분 한인연합교회
Jalan Wijaya 1 No.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MP. 0816-1911-245. Tel. 021-720-5979

자카르타 홍수방지 3대 프로젝트는?

1. 켈리옹(Ciliwung) 강 복구 2. Sodetan Ciliwung 강 1,200m터널 공사 3. 켈리옹 강 상류 댐

자카르타 홍수방지 프로젝트

(Proyek Antibanjir Jakarta)
공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중앙 정부와 자카르타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자카르타 홍수방지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20일 발생한 자카르타 홍수사태로 400억 루피아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공공사업 주택부 해안 하천 관리국장은 자카르타 홍수방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첫째, 자카르타 홍수방지 프로젝트는 켈리옹(Ciliwung)강을 복구하는 것이다.

복구 종인 켈리옹 강 길이는 33.5km이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강 복구된 구간은 16 km이다. 이는 켈리옹 강 하천 지대에 아직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

되었다.

공공사업 주택부 해안 하천 관리국장(Direktur Sungai dan Pantai Ditjen Sumber Daya Air Kementerian PUPR) Bob Arthur Lombogia는 지난 2월 21일 "정부는 하천지대 구입(Terkendala Masalah Lahan) 가격은 문제가 없지만 토지구입 예산(Alokasi Anggaran Lahan)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며, "만일 주민들에게 하천 지대를 구입한다면 나머지 17 km 길이 켈리옹 강 복구 완공 작업은 2년 (Rampung 2 Tahun) 걸릴 것(Itu mungkin paling lama 2 tahun kalau sudah bebas semua, kan cukup banyak 17 km)"이라고 말했다.

둘째, 자카르타 홍수방지 프로젝트는 1,200m터널 공사다.



<자카르타 홍수방지 프로젝트는 켈리옹(Ciliwung)강을 복구>



<자카르타 홍수방지 프로젝트는 1,200m터널 공사>



Kalau Gubernur DKI tidak menyelesaikan Pekerjaan-Rumahnya, membersihkan got, gorong-gorong, kali, sungai dan pintu air, maka KELAR hidup loe...

현재 Sodetan Ciliwung 켈리옹 강 1,200m터널 공사 가운데

600m공사되었다. Bob Arthur Lombogia 국장은 "2021년 공공사업주택부는 터널을 짓기 위해 토지를 주민들로부터 구입하고 터널을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자카르타 홍수방지 프로젝트는 켈리옹 강 상류에 댐을 건축하는 것이다.

켈리옹 강 상류지역 보고르군 씨아위(Ciawi)와 수까마

히(Sukamahi) 지역에서 댐을 건축해야 한다. Bob Arthur Lombogia 국장은 "만일 이 댐이 완공되면 자카르타로 흐르는 켈리옹 강물이 30%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Kemayoran 및 Pademangan 지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Ancol 및 Sentiong에 초당 50m3 용량의 펌프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부>



<자카르타 홍수방지 프로젝트는 켈리옹 강 상류에 댐을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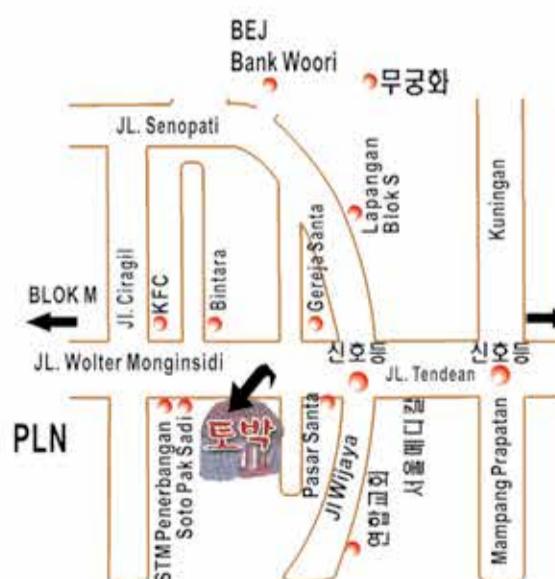
새로운...
맛이 보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토박상품권"판매

토박



- * 새로운 메뉴 *
- 콩나물삼겹살
- 녹차고등어김치조림

Jl. Woltermonginsidi No.30 Jakarta Selatan

예약전화

Tel : 725-1135, 7278-0055, 7280-0753

Fax: 720-3642 HP.0858-1412-5338

PT. FREIGHT CARGO LOGISTICS



해상운송

- Neut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Air Service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edung Perkantoran Pulomas Satu, GD.3 LT.3 R.10

JL. Jend. A. Yani No.2, Jakarta Timur

TEL. 021-475 4547,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쌍둥이 신랑, 쌍둥이 신부와 결혼



(한인포스트) 쌍둥이 신랑이 쌍둥이 신부를 맞아 같은 날 결혼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토) 주말을 맞아 서부자와 수메당군 찌망군면에 살고 있는 쌍둥이 신랑 신부는 혼인 잔치를 열고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신랑은 20살, 신부는 한 살 어린 19살로 학교 달릴 때부터

서로 쌍둥이라는 것을 알고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먼저 Ellwanda가 Rani가 사귈 때 서로가 쌍둥이라는 것을 알고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쌍둥이는 데이트 할 적에 얼굴이 비슷해 혼돈(?)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보시죠

3개월만에 일일 확진자 5,500명대…감소세 뚜렷 양성률은 여전

백신접종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감.. 2주동안 2,690,163명 접종
코로나19 양성률은 2월 첫주 27.7%, 둘째주 25.8%, 셋째주 27.27%, 넷째주 19%

2월 28일 일일 확진자는 5,560명으로 지난 2020년 12월 2일 이후 가장 적다.

코로나19 대책본부는 2월 28일 신규 확진자가 5,560명 발생되어 누적 합계 1,334,634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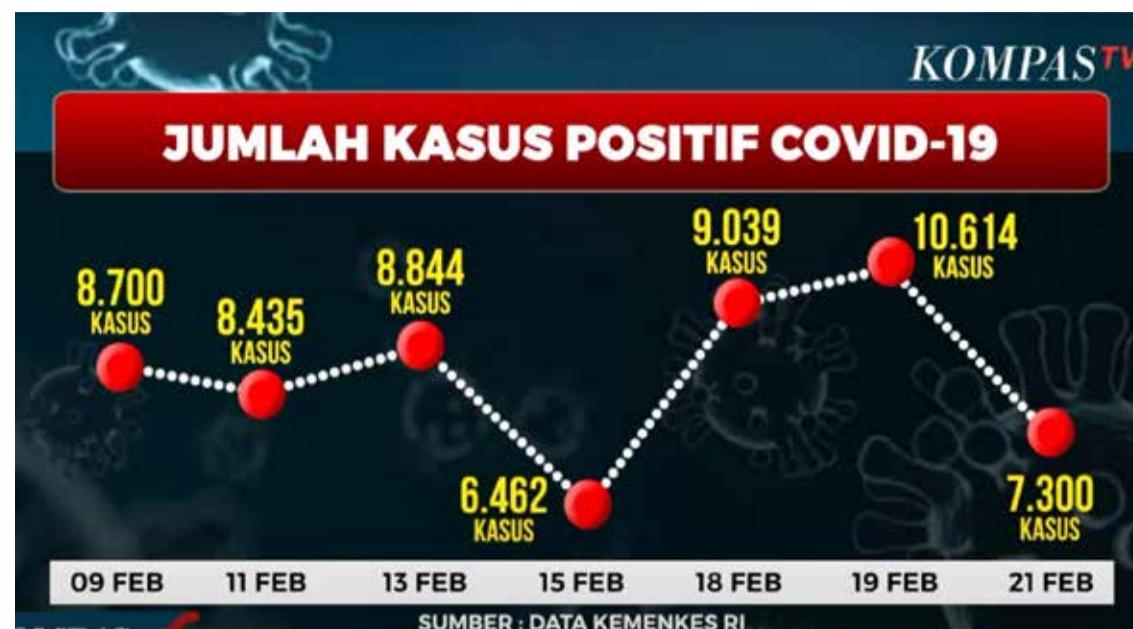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대는, 지난 2020년 12월 2일 5,533명이 가장 적은 수이다.

이날 일일 확진자 증가는 자카르타도 2,098명으로 줄었고, 이어서 부자와 770명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일 확진자 감소세는 지난 1월 30일 14,518명을 정점으로 30일째 확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테스크포스 데이터를 보면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또는 소규모 사회활동 제한조치(PPKM Mikro) 표면적인 결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사회활동제한조치(PPKM)와 소규모 사회활동제한조치



(PPKM Mikro)는 자와-발리에 있는 자카르타, 반쁜, 서부 서부, 중부 자와, 동부 자와, 족자, 발리주 등 모두 7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테스크포스 대변인은 7개 주 가운데 3개주, 자카르타, 반쁜, 그리고 동부 자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가 줄었다면서 "자카르타 확진자도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이전에 18,000명이었지만 이제는 2,000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보건국장 Widayastuti는 소규모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Mikro)가 취해졌기에 자카르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전했다. Widayastuti 국장은 자카르타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7일에 23,869명이며 2월 21일에 13,309명, 2월 28일에는 2,000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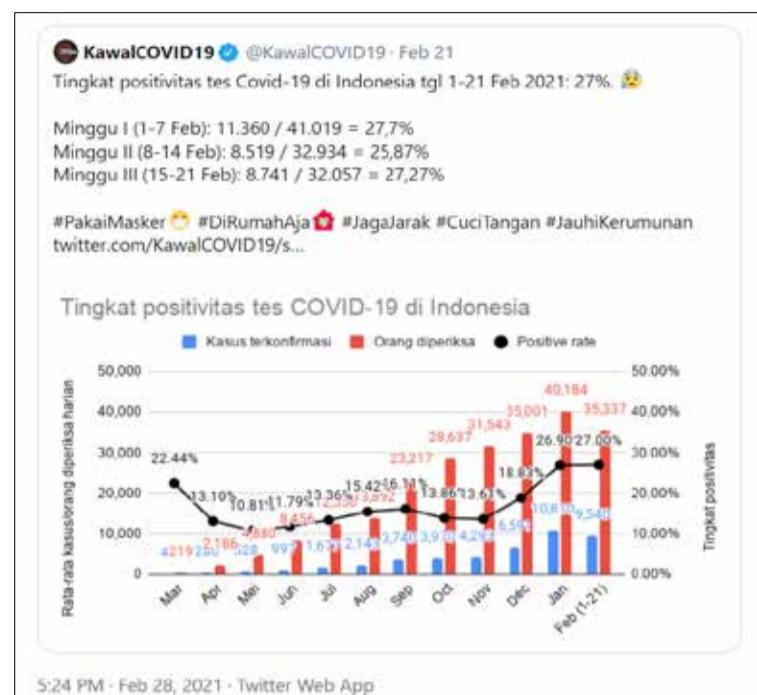
아이르랑가 장관도 2월 20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확진자가 2주일동안 PPKM 때문에 1주일에 17.27% 줄었고 회복 환자는 늘었다. 또한 자카르타, 서부 자와-발리에서 병상 사용률이 70%로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수와 자연재해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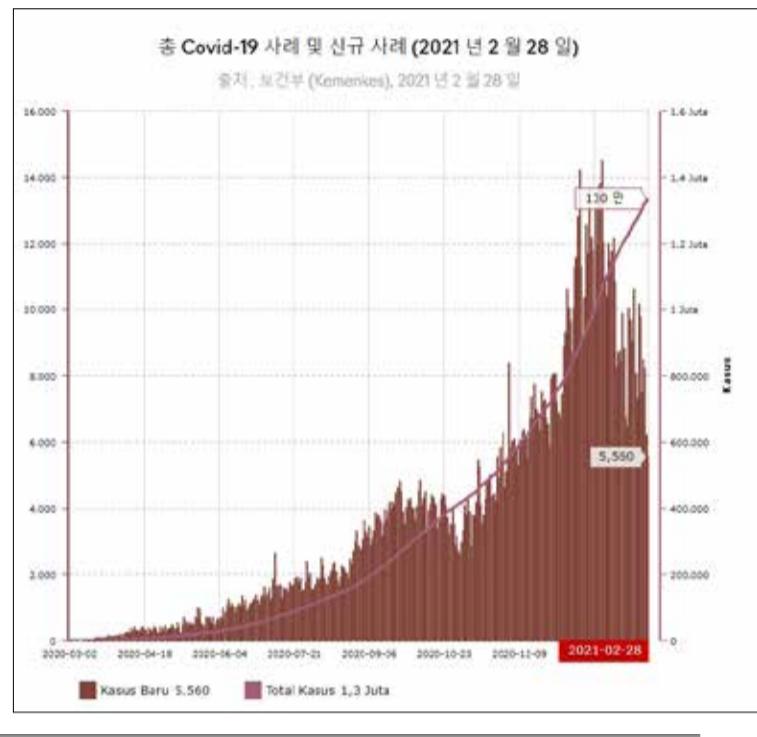
한 검사수 감소세도 확진자 감소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확진자수는 급감하는 추세지만 양성률은 완만한 감소세이어서 감사수가 줄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코로나19 양성률은 2월 첫주에 27.7%, 둘째주 25.8%, 셋째주에 27.27%, 넷째주 19%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접종으로 인한 대국민 반응과 호응은 아주 좋은 편이다.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인 도니 위원장은 8월 17일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정부당국도 올 연말까지 전국민의 70%를 접종시키겠다는 목표로 백신 접종에 총동원하고 있다. 코로나 19 백신은 2단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2월 28일 현재 2,690,163명이 접종했다.

<사회부>



5:24 PM - Feb 28, 2021 · Twitter Web App



조코위,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타깃 1억8,200만명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2021년에는 1억 8,2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

"우리의 목표는 1억 8천 2백만 명의 사람들이 올해 말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2월 20일 토요일, 서부 자바의 보고르 팰리스에서 열린 온라인 임팩 기념행사에서 말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3만 명의 접종자가 있으며, 경찰/군(TNI)의 예방접종자 9,000명이 추가됐다.

"그것은 우리에게 39,000명의

예방접종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 명의 접종자가 [Covid 백신]으로 30명을 주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1.2명 정도의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19 백신 공급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분량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지금까지 300만 회 분량의 코로나 백신이 접종을 받기 위한 우선순위 중 하나로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배포되었다.

최근 700만 개의 백신이 보급되어 교사, 노인부터 시장 상인과 사람들이 경제 중심지에서 일할 때까지 공공 서비스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의료 종사자 두명 사망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두 명의 의료 종사자의 죽음을 깊은 애도를 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랐다.

힌드라 이와완 사타리 국가 예방접종 사고위원회(Komnas KIPI) 위원장은 1차 접종 직후 면역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아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접종 후 28일 이내에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할 것이다. 백신 접종 2주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접종은 초기 면역반응을 촉발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접종은 형성된 면역반응

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손 씻기,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신 테스트 과정이 WHO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확신했다. Padjadjaran 대학 백신연구팀이 실시한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백신의 부작용은 경미하고 통증이 있거나 붉어지거나 가려움증 등의 형태로 국소반응을 보이는 등 극복이 용이하다.

힌드라 위원장은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심각한 부작용 비율은 100만 명당 42명인 반면 비중증 부작용은 1만 명당 5명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MUI, 알코올 음료법 비판

안와르 아바스 인도네시아 MUI 부의장은 23일 최근 통과된 주류 투자 허용 법안을 비판했는데, 이는 주류 착취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28일 일요일 MUI 부의장은 "국민과 국가가 정부와 기업에 의해 착취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위치하는 것을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정이 주류 산업을 규제로 허용된 지방 국경을 넘어 주류 유통을 넓힐 것이라고 주장해 대중들에게 해를 끼칠 개방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푸아, 발리, 동부 누사 템가라, 북부 술라웨시 등지의 주류산업 투자를 총괄하는 투자기 yapı에 대한 대통령령규정 제10호/2021호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1년 2월 2일 비준한 것이다.

MUI와 유사한 또 다른 항의는 PAN 소속의 살레 파르타오난 달ول레이 하원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살레 파르타오난 달ول레이 의원은 "법에서 언급된 것 외에 지방에서 불법, 위조 알코올의 폭동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 경찰과 BPOM은 종종 그러한 범죄의 용의자들을 체포했다."라고 Daulay는 말했다.

앞서 보도된 바일 라하달리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총재는 대통령 규제가 일반적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의도된 사업부문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주류 규제 투자 가능성 전망

공공정책 전문가인 아구스

팜비조오는 대통령 규정 제10호/2021호에 언급된 주류 관련 투자의 합법화가 잠재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 규정은 특히 국내산 주류를 명소로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규정은 이미 지역 지혜와 일치하고 많은 노동자들을 참여시킨다. 세계 시장에 진출한 발리의 사바바이 와이너리와 같은 것이다. 만약 그것이 폐쇄된다면 투자자들은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Pambagio는 성명에서 말했다.

그는 사업 용이성에 대한 이 정책은 관광지로 알려진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

광을 활성화하기를 원하지만, 술이 없으면, 어떤 관광객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인도네시아 지역의 또 다른 예로는 파푸아, 발리, 동부 누사 템가라, 북부 술라웨시 등이 있는데, 이는 매우 저항적인 일자리 창출법 제11/2020호에서 파생된 것이다.

앞서 주류 투자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하원 PAN 국회의장 살레 파르타오난 달ول레이 의원은 특정 지방의 주류 투자법을 감독하고 법률 내용이 향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규정을 정부에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주류 산업에 대한 투자로 얻는 이득은 거의 없지만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지난 2월 28일에 덧붙였다.

초중고 학습지 주문 신청 한국 일간지/주간지/월간지 구독 안내

▶ 일간지 : 격일(월 수 토) 배달 월 91만 루피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일간스포츠
전자신문

▶ 주간지 :

주간조선 주간한국 주간매경 이코노미스트
한겨레21 시사저널 시사in

▶ 월간지 :

신동아 월간조선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과학동아 소년조선 styler 리빙센스.....

0812-1004-999

카톡아이디 haninpost

021-4586-9199(대) haninpost@gmail.com

사람 얼굴을 닮은 아기 상어



<NTT 어부들이 잡은 상어 새끼는 눈과 입 모양이 사람 얼굴을 닮고 있다.>

동부 누사텡가라(NTT) 주 Rote Ndao군 어부들은 사람 얼굴을 닮은 새끼 상어를 잡은 동영상을 SNS에 올려 네이션들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어부들은 생선 잡이에 나섰고 큰 상어와 중간 상어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았다.

다음날 어부들은 "상어를 잡고 운반하기 위해서 상어 토막 작업을 하다가 배속에서 인형 같은 새끼 상어 2마리가 나왔다. 너무 무서워서 버렸다가 다시 가져왔다"고 말했다.

NTT 어부들은 잡은 새끼 상어는 눈과 입 모양이 사람 얼굴을 닮고 있다.

어부들은 죽은 새끼 상어를 알코올 병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

했다.

한편, Rote Ndao군 어부들이 올린 동영상을 본 Diponegoro 대학 Agus Hartoko 교수는 "사람 얼굴모양 상어는 유전적 변이로 보인다.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온 경우 유전적 변이일 수 있다. 질병, 기생충, 중금속 오염 또는 화학 물질 때문일 수 있다"고 24일 전했다.

변이 상어 발견은 처음이 아니다. NTT의 Kupang에서 한쪽 눈을 가진 상어가 발견되었다.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LIPI) 실비아 연구원은 "어미 몸에서 새끼가 이상 발육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서도 변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한 마을에 쌍둥이 23쌍 태어나… "헷갈리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한 마을에 오랜 기간에 걸쳐 23쌍의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28일 콤파스, 트리뷴뉴스에 따르면 중부 자바주 클라렌군 종 그랑안(Jonggrangan)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쌍둥이가 자주 태어났다.

마을 이장 수나르안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23쌍, 46명의 쌍둥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며 "전부터 쌍둥이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2000년대 들어서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1쌍인 줄 알다가 최근에 2쌍을 더 확인했다"며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둥이들은 대부분 종 그랑안 마을에 계속 살고 있으며 일부만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수십쌍의 쌍둥이들이 한마을



[트리뷴뉴스]

에서 태어나 같이 학교에 다니고, 일을 하다 보니 얼굴이 헷갈려서 벌어진 에피소드 또한 다양하다. 쌍둥이 가운데 한 명인 압둘 아지즈는 "많은 사람이 나와 쌍둥이 형제의 이름을 잘못 부른다"며 웃었다.

이 마을의 쌍둥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분하기 쉽게 염색하거나 안경을 쓰는 등 자신만의 '외적 특징'을 살리는 경향이 있다. 종그랑안 마을에 쌍둥이가 왜 자주 태어나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마을 이장 수나르안은 "나도 이유는 모른다. 다만, 유전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쌍둥이 가운데 일부 가계도를 보면 또 쌍둥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태극기 벽화 오류"…韓문화원, 삼일절 맞아 수정

"대사님, 대한민국 국기가 벽에 잘못 그려져 있는데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달 말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앞으로 교민이 쓴 편지 한 통이 전달됐다.

자카르타 동부지역 대로변에 북한 인공기와 우리 태극기 그림이 있는데, 태극기의 견본감리가 잘못 그려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1일 삼일절을 맞아 자카르타의 한국문화원 직원과 현지인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 5시간에 걸쳐 태극기를 새로 그렸다.

태극기가 그려진 벽은 동부 자카르타 라와방운의 골프장(JGC) 외벽으로,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이 골프장은 1872년 건립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장으로 유명하다.

문화원이 알아보니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관할 동사무소가 흥보 차원으로 골프장 외벽에 여러 나라 국기를 그렸다.

지리적으로 북한이 북쪽에 있어서 인공기를 위에 그리고, 태극기를 아래 그린 것으로 추정됐다. 골프장과 동사무소 측은 태극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다만, 태극기의 위치는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김용운 한국문화원장은 "너털너털해진 태극기 벽화를 긁어내고, 새로 태극기를 올바르게 그렸다"며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벽화작업을 쳐다보고 관심을 보였다. 삼일절이라 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건본감리가 잘못 그려진 태극기를 새로 그리는 모습[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제공=연합뉴스]

(자카르타=연합뉴스)

HanInPost

한인포스트

광고 및 구독(신문/pdf)으로
한인포스트를 응원해 주세요

PT.Hannahpress Indonesia
Tel: 021-4586-9199, HP.0812-1004-999
Fax: 021-4586-9198
e-Mail: haninpost@gmail.com
www.haninpost.com

'K리그 13경기' 이유준, 인도네시아 귀화 임박

한국프로축구 출신 이유준(32·
바양카라)이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간지 '볼라'는 26일 "이유준이 귀화 절차를 곧 마무리하고 신태용(52) 감독이 지휘하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볼라'는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을 위한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며 전했다. 이유준은 2013~2016년 강원FC, 충주 힘멜프로축구단에서 K리그 13경기를 뛰었다. 인도네시아 1부리그는 2017시즌부터 활약 중이다.

바양카라에서 이유준은 메인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뿐 아니라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공격형 미드필더, 좌우 풀백/윙백 등 중앙과 측면, 2선과 3선을 가리지 않고 기용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볼라'는 "2020년부터 진행한



K리그 출신 이유준이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을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귀화 후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국가대표팀 합류가 예상된다. 사진=바양카라 공식 홈페이지

귀화 절차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됐으나 이제 막바지다. 이유준은 국가대표팀 전력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봤다.

CJ CGV, 인니 36개 극장에서 '스탠드 바이 미 도라에몽2' 개봉



CJ CGV(이하 CGV)가 인도네시아에서 영화 '스탠드 바이 미 도라에몽2'를 상영하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인도네시아 언론 매체 '인더스트리코이드(industry coid)'에 따르면 CGV 인도네시아는 지난 19일부터 36개 극장 100개 이상의 스크린에서 스탠드 바이 미 도라에몽2를 상영하고 있다.

야마자키 다카시와 야기 류이치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도라에몽의 도움을 받아 시간여행을 떠나는 노비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스탠드 바이 미 도라에몽2 외에도 현재 CGV 인도네시아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액션 영화 '테넷', 애니메이션 영화 '암마 슬레이어: 키메츠 노 야이바 더 무건 트레인', 코미디 영화 '콘 헤아티스트'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CGV 영화관은 스탠드 바이 미 도라에몽2 개봉에 앞서 보건부와 지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관객들의 안전한 영화관람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테이블, 의자, 티켓 자동 판매기, 싱크대 등 방문자들이 자주 만지는 곳을 소독하고 바닥에 안내선을 표시해 방문객 간 일정 거리 유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현지 CGV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CGV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3925억원, 순손실은 7453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국내에서 직영점 119곳과 위탁점 61곳을 운영하는 CGV는 현재 8개 직영점을 휴관 중이다. 이 회사는 국내를 비롯한 7개국에서 594개 극장, 4271개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베트남과 터키 CGV는 현지 1위, 인도네시아 CGV는 현지 2위 영화관으로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CGV는 코로나19로 극장 영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해 10월 말 정식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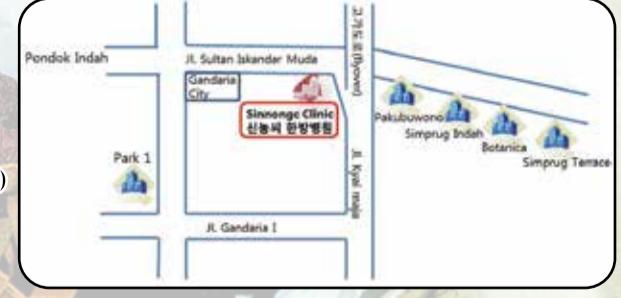
신농씨한방병원

"교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오후진료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장소(간다리아 부근)로 이전했습니다.

* 진료과목

급만성통증(요통, 경통, 두통, 무릎통증)
각종 내과질환(소화기, 호흡기 전문)
심장병, 중풍, 클리닉
소아성장, 수험생 클리닉
부인과 클리닉(생기, 증후군, 생리불순, 불임)
면역강화 프로그램(잦은감기, 설사, 만성피로)



평일 - 9:30 ~ 6:00 (목요일은 12:00까지)

토요일 - 9:30 ~ 3:00

일요일 - 오후 1:00 ~ 5:00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네이버 뱅드에서 '신농씨 한방병원'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건강 신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Jl. Sultan Iskandar Muda No.60 (아리따움 치과 1층)

전화번호 : 021-725-1801 081-2224-1075(한방치료)

* 원장 최정(한의사 면허번호 12721)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석사
대한 한의학회 방제학회 회원
대한 한의학회 면역학회 회원

BRITISH SCHOOL JAKARTA

탐구 기반 학습,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 다양한 과외 활동 및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통해 BSJ의 학습 여정을 통해 학생들의 고유한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알아보세요!

**온라인 오픈하우스
VIRTUAL OPEN HOUSE**

PRIMARY 초등 (3-11세) **SECONDARY** 중고등(11-18세)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10시 30분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자카르타 시각) (자카르타 시각)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 bsj.sch.id/VirtualOpenHouse

추가안내 : admissions@bsj.sch.id

OPEN FOR PUBLIC

금주의 시

어떤 생애

꿈속에서

구름을 타고 놀다
깨어 보니 벌써
해는 중천에 떠 있다



시장기를 느끼어
먹이를 찾아
산과 들을 서성이다

길 가에

외롭게 피어 있는
들꽃을 만나

김준규 시인 /
인니 한국문협 운영위원

예기 꽃을 펴우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다



시작 노트

우리는 아름다운 시절을 꿈꾸듯 흘려 보낸다. 그러나 꿈은 꿈일 뿐이다 현실 앞에 닥친 생존을 위해 협단한 사냥 길에 나서야 하고 (경제 활동) 자연의 일원으로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과 생식의 본능에 순응 하며 살아간다.

BORNGA
-ORIGINAL KOREAN TASTE-

소중한 사람들과
귀중한 시간을 본가와 함께

본가 깨끗점
수카르노하타 국제 공항
인접 15분 거리

Bornga PIK
Ruko crown golf blok D 53-55
Mr.Shin
081255780612
Septi
085279797935

본가 소호점
자카르타
이구아리움 옆

Bornga Neo Soho
Neo Soho podomoro city Lt.LG
Wiwie
081293665623

타 지점
Blok m
Wolter monginsidi
Kelapa gading
Lippo puri mall
Bekasi timur
Serpong Utara

KARAWANG
NEW INDUSTRY CITY

TANGERANG
NEW INDUSTRY CITY

HAPPY LUNAR NEW YEAR

+62 811 117 9899
invest@knic.co.id, www.knic.co.id

한국, 코로나 대응 세계 8위 인도네시아 48위로 최하위권

지난날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는 국가 순위에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알려졌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집계한 2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Covid Resilience Ranking)'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5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을 거론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중국은 6위, 일본은 9위를 각각 기록했고, 미국은 27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는 영국(30위)·프랑스(19위)·독일(34위)·이탈리아(29위)·러시아(22위)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포함됐다. 전체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비율이 84.8%에 달하는 이스라엘은 14위에 그쳤다.

블룸버그의 '코로나19 회복력 순위'는 한 국가가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다. 인구 10만명당 조사 월(月) 확진자 비율·인구 100명당 전체 사망자 수·인구 대비 백신 확보 비율(계약 포함)·인구 대비 백신 접종 비율·봉쇄 강도·의료 보험가입 비율 등 11개 항목을 종합해 매달 발표한다.

한국은 지난 1월 조사에서 12위로 내려갔다가 순위가 4단계 상승했다. 조사 접수도 1월 60.9점에 비해 2월엔 65.3점으로 올랐다. 한국은 '코로나19 회복력 순위'가 처음 집계된 지난해 11월 조사에선 4위를 기록했다. 이후 8위(12월), 12위(1월)로 순위

| | | Covid Resilience Ranking | | | | | | |
|-------|-------------|------------------------------------|---------------------------|-----------------------|----------------------------|--------------------|--------------------------|---------------------|
| | | Get info and sort on table headers | | | | | | |
| | | BLOOMBERG RESILIENCE SCORE | 1-MONTH CASES PER 100,000 | 1-MONTH FATALITY RATE | TOTAL DEATHS PER 1 MILLION | POSITIVE TEST RATE | ACCESS TO COVID VACCINES | DOSES GIVEN PER 100 |
| 1 - | New Zealand | 77.2 | 2 | 1.3% | 5 | 0% | 247% | 0 |
| 2 ▲1 | Australia | 72.6 | 1 | 0% | 36 | 0% | 250% | 0.01 |
| 3 ▼1 | Singapore | 71.3 | 10 | 0% | 5 | 0% | 85% | 4.49 |
| 4 ▲3 | Finland | 67.6 | 218 | 0.8% | 132 | 3.7% | 231% | 6.57 |
| 5 ▲1 | Norway | 66.9 | 149 | 0.8% | 112 | 1.7% | 231% | 7.33 |
| 6 ▼1 | China | 66.2 | 0 | 0.1% | 3 | 0.1% | 84% | 2.89 |
| 7 ▼3 | Taiwan | 65.4 | 0 | 3.8% | 0 | 0.1% | 37% | 0 |
| 8 ▲4 | South Korea | 65.3 | 25 | 1.7% | 31 | 1.3% | 135% | 0 |
| 9 ▼1 | Japan | 64.1 | 48 | 4.1% | 60 | 2.6% | 129% | 0.01 |
| 10 ▲4 | Thailand | 62.3 | 17 | 0.1% | 1 | 1.5% | 45% | 0 |
| 11 ▲6 | Denmark | 61.5 | 240 | 2.6% | 405 | 0.4% | 231% | 8.8 |
| 12 ▲1 | Canada | 61.4 | 279 | 2.8% | 577 | 7.3% | 335% | 4.23 |
| 13 ▼4 | Hong Kong | 61.1 | 11 | 3.5% | 26 | 0.1% | 155% | 0 |
| 14 ▲1 | Israel | 59.6 | 1,874 | 0.7% | 651 | 6.5% | 138% | 84.78 |
| 15 ▼4 | U.A.E. | 58.8 | 987 | 0.4% | 116 | 1.7% | 31% | 52.73 |

가 내려갔다가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개별 조사항목을 분류하면, 한국은 특정 항목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인 상황에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인구 100만명 당 사망자 비율·인구 100명당 전체 사망자 수·인구 대비 백신 확보 비율(계약 포함)·인구 대비 백신 접종 비율·봉쇄 강도·의료 보험가입 비율 등 11개 항목을 종합해 매달 발표한다.

한국은 지난 1월 조사에서 12위로 내려갔다가 순위가 4단계 상승했다. 조사 접수도 1월 60.9점에 비해 2월엔 65.3점으로 올랐다. 한국은 '코로나19 회복력 순위'가 처음 집계된 지난해 11월 조사에선 4위를 기록했다. 이후 8위(12월), 12위(1월)로 순위

블룸버그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백신 확보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대처했으며, (그들 나라의) 당국자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홍콩과 호주, 한국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들은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한국의 발 빠른 백신 확보 대처를 호평했다.

그러나 블룸버그의 조사 당시에는 한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백신 접종 비율과 2020년 대부분의 시간에서 보여줬듯이, 국민들이 정부와 정부의 지침에 신뢰를 가질 경우 봉쇄 조치들(lockdowns)이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면서 "다만, 극심한 겨울 (확진) 파고가 개방적인 접근법에 명백하게 시련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유럽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보다 빠르게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는 백신 공급에 있어 국가 간 빈부 격차 문제를 가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호주·싱가포르·핀란드·노르웨이·중국·대만·한국·일본·태국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상위 10위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집중됐다.

블룸버그가 최하위인 53위로 지목한 국가는 멕시코였다. 역순으로 페루(52위), 체코(51위), 브라질(50위), 나이지리아(49위), 인도네시아(48위), 이집트(47위), 남아프리카공화국(46위), 이란(45위) 등 중남미 국가와 아프리카·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류로드'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3,185Km를 잇다

파푸아주·말루쿠주 대상 '찾아가는 문화원' 및 '별별스타 지역예선전' 개최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영운)은 지난 2월 21일(일) 문화소외지역에서 한국문화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원'과 그 지역의 한류 장기보유자를 선별하는 '별별스타 지역예선'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3,185킬로에 위치한 파푸아주의 소롱(Sorong) 시와 말루쿠(Maluku)주 한류팬을 대상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자카르타와 2시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실시간 ZOOM 참가자 100여명과 문화원 유튜브를 통해 총 220여명이 실시간 방청하였으며, 실시간 참여 댓글 370건 및 좋아요 180건이 기록됐다.

말루쿠·파푸아주 한류 커뮤니티 회장은 수 년만에 처음으로 한국문화를 가까이 체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참가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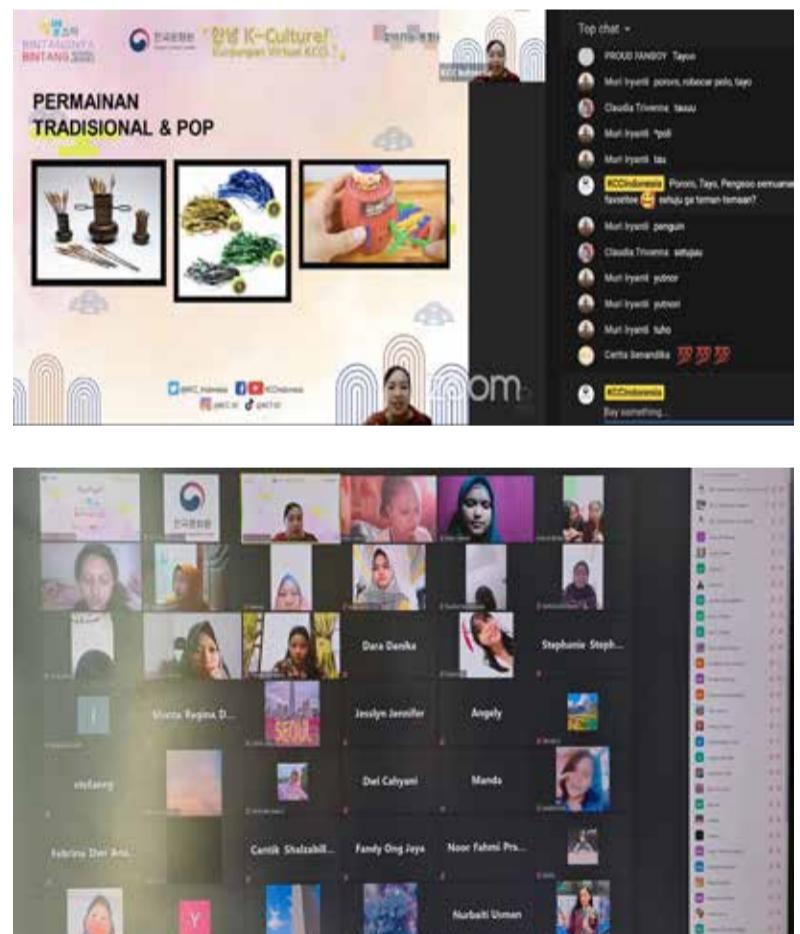


홍보 활동에 앞장서겠다면서 문화원 '한류 로드'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문화원' 사업을 통한 한국문화 상징 소개와 즉석에서 한글로 이름쓰기, 한국 문화 상징 맞추기, 그리고 각 지역 한류 현황을 소개하는 등 한류팬들과 양방소통을 실천했으며, '별별스타 지역예선전'에서는 한국드라마를 통해 자발적으로 의한 한국어 실력으로 한국 구연동화 '청개구리'로 참가한 한류팬을 비롯하여 BTS 등 최신 케이팝부터 2000년대의 춤과 노래로 참가하는 등 케이팝의 장르와 시대 구분없이 관심을 받고 있었다.

우리 문화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약 10개 지역 한류팬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별별스타 지역별 1등 수상자는 연말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는 '별별스타 왕중왕전'에 초청되어 전국의 내로라하는 한류 장기보유자들과 열띤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붙임 : 1. 행사 사진 및 포스터 4장



창간 14주년을 맞는 한인포스트(법인명 PT.HANNAHPRESS INDONESIA)는 한인기업과 단체들의 활동과 행사를 직접 취재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유력 신문과 방송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은 사전에 보도자료(한.인니 또는 영문)를 보내주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Mail: haninpost@gmail.com
08121004999 또는
카톡아이디: haninpost

단, 한권이라도 3일내에 보내드립니다

- 각종 도서 출판물 수입 공급 안내
- 각종 단행본 도서물
- 교재 및 학습지
- 주간지 월간지
- 각종 인쇄 출판물

정식통관 세금 100% 지불하면 더 싸고 빠릅니다.

출판물 신문 특송업체
TIGA BINTANG JAYA
021-4586-9199, 08121004999



한국인 임상병리사 상주

COVID-19 PCR 검사센터

결과 조회까지

24
시간

결과 조회까지

12
시간

결과 조회까지

6
시간

IDR 900.000

IDR 1.500.000

IDR 2.000.000

※ 상기 금액은 VAT 10% 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운영 시간

7:00 AM ~ 7:00 PM / 일요일 휴무

당일 결과 희망 시 11시까지 방문 필수



찾아오는 길



Jl. Sekolah Kencana IV A No. 8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310

• 본 검사실은 K-Lab 과 뽐독인다 메디컬 센터가 공동 운영합니다

• 본 검사실은 한국 전문 검사기관의 자문을 받아

코로나 검사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현지 보건부의 인허가를 득했습니다

개인 고객

QR 코드로 간편 예약

결제 예약 없이 방문

가능 드라이브 스루

검사 가능

단체 고객

직원 대상 대규모 검사

50인 이상 현장 방문

가능영업 담당자와 견적

상담가능

방문 검사

병원 방문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정에서 방문

비용 별도



빠르고 정확한
**COVID19
PCR TEST**

교민 한정 PROMOTION

검사센터 방문 시 본 바우처를 지참하시어

접수원에게 제시하시면

검사료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2 811 1900 5257

한국인 고객 전용 지원 센터

& Whatsapp & 카카오톡

건축허가 IMB 폐지 PBG로 대체 건축물 사용 용도 규제

건축허가 IMB가 PBG로 대체되면서 인허가에 건물 사용 용도를 요구하고 있다.

건축허가IMB는 공식 해제되고 PBG로 대체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건축물에 관한 법률 2002-28호에 규정된 건축 허가 (IMB - Izin Mendirikan Bangunan)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건축 승인 (PBG - Persetujuan Bangunan Gedung)이라는 정부령을 제정했다.

PBG규정은 건축물에 관한 법률 2002 - 28호 시행에 대한 정부령 (PP) 2021 - 16호에 규정됐다. 이PBG정부령은 고용창출법 2020 - 11호 24조와 185조 6항에서 파생된 것이다.

PBG 정부령 2021 - 16호 발령으로 관보 2005 - 83호 또는 관보 45321호에 기록된 건축물에 관한 법 2002 - 28호 정부령 2005-36호는 무효가 되었다.

PBG는 건물 건축 승인이라 는 뜻인 Persetujuan Bangunan Gedung의 줄임말이다. 이에 건물 소유자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려면 PBG를 받아야 한다.

정부령 2021-16호 17조에 따르면 "PBG는 건물 소유자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물을 변경 또는 확장, 축소, 개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건축 인허가에 따른 IMB와 PBG 차이점은 이러하다.

IMB 건축 허가 (정부령 2005 - 36호)

(1)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건물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 특수 기능 건축물을 제외하고 지방 정부에서 소관한다.

(3) 건축 허가 신청에서 건물 위치에 대한 시/군 계획 증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PBG 승인(정부령 2021 - 16호)

PBG 정부령 2021 - 16호는 건물의 기능과 분류, 기술 표준, 건물 관리 과정, 행정적 제재, 사회적 역할과 지침에 대해 더 많이 규제한다.

당국자는 "건물 소유자는 법규에 따라 인증서를 가진 건물계획 서비스 업체로부터 건물에 대한 기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물 승인 (PBG)을 받기 위해서 기술 계획서를 담당 시/군 정부 또는 주 정부, 자카르타 특별 주 정부, 또는 중앙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PBG 정부령 2021 - 16호 250조에 따르면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는 건축 건물이 정부령 2021 - 16호 13조에 의해 규정된 건물의 기술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충족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기술 기준 조건을 단계로 충족시켜야 한다.

건물의 기술 기준이란, 건물 계획과 설계 기준이 포함된다.

건물 건축의 구현과 감독 기준, 건물 활용 기준, 건물 철거 기준, 문화 유산 건물 (BGCB - Bangunan Gedung Cagar Budaya)의 운영에 관한 규정, 특수 기능 건물 (BGFK - Bangunan Gedung Cagar Khusus) 구현에 관한 규정, 친환경 건물 관리 (BGH - Bangunan Gedung Hijau)에 대

한 규정, 국가 건축물 (BGD - Bangunan Gedung Negara) 구현에 대한 규정 등을 건축물 시행 규정과 적합해야 한다.

당국자는 "건물 소유자는 법규에 따라 인증서를 가진 건물계획 서비스 업체로부터 건물에 대한 기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물 승인 (PBG)을 받기 위해서 기술 계획서를 담당 시/군 정부 또는 주 정부, 자카르타 특별 주 정부, 또는 중앙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 소유자는 건축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는 건축 건물이 정부령 2021 - 16호 13조에 의해 규정된 건물의 기술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충족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기술 기준 조건을 단계로 충족시켜야 한다.

기술적 요소가 수반되는 검사 결과는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다.

이 보고서는 기술 기준 준수 증서와 PBG 재등록에 부착된다.

PBG 시행령 설명에서 당국자는 "PBG발급은 투자관리국 및 원스톱 통합 서비스 사무소 (DPMPTSP)에서 지역 부과금 지불 증명을 확인한 후에 발행된다.

PBG는 각 지역 DPMPTSP

에서 발행하며, 건축물 건설과정을 감독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해외매출 '1조' 돌파 앞둔 코웨이, 수출기업으로 '우뚝'

coway

지난해 최고 실적을 경신한 코웨이가 올해 해외법인 매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9년에 이어 작년에도 해외법인 매출이 35% 이상 성장한 가운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올해 해외사업 매출 1조원 달성을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의 작년 해외법인 5곳의 총 매출은 8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4% 증가했다. 렌탈 계정수는 193만 개로 전년 대비 27.9% 늘어났다.

지난해 코웨이는 중국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매출이 모두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해외시장에 이어 작년 3분기 베트남에도 법인을 설립했다.

동남아 지역 내 추가 법인 설립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신규 법인의 성공적인 안착에 집

중할 계획이며 신규법인 설립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 올해도 30%가량 성장한다고 예측하면 매출은 1조1649억 원 가량을 기록하게 된다.

이 회사는 2006년 말레이시아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진출을 본격화해 올해로 해외사업을 시작한지 15년이 됐다. 이듬해에는 미국 내 법인을 세우며 동남

아시아 지역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지역 성과가 두드러졌다. 작년 해외법인 매출 8961억원 가운데 말레이시아 법인의 비중이 79%로 가장 높다.

말레이시아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코웨이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작년 3분기 베트남에도 법인을 설립했다.

동남아 지역 내 추가 법인 설립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신규 법인의 성공적인 안착에 집

중할 계획이며 신규법인 설립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미국 매출과 관리계정수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후 2017년부터는 적자였던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며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작년 코로나19에도 미국법인 매출이 152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56.6% 성장했고,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올해는 해외사업 매출 1조원

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웨이가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웨이 관계자는 "올해는 연

내 동남아에서만 200만 계정을

무난히 돌파해 글로벌 환경가

전 리더십을 공고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지 맞춤형 혁신

제품과 차별화된 전문 관리서비

스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이

어나갈 계획이며, 국내외 비즈니

스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

루며 글로벌 환경가전 절대 강

자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

라고 말했다. <CEOSCORE Daily>

2020년 코웨이 해외법인 매출

| 지역 | 2020년 | 2019년 | 증감률 |
|-------|-------|-------------|---------|
| 말레이시아 | 7085 | 5263 | 34.6% |
| 미국 | 1524 | 973 | 56.6% |
| 중국 | 20 | 37 | -44.8% |
| 태국 | 289 | 203 | 42.6% |
| 인도네시아 | 42 | 3 | 1245.2% |
| 베트남 | | 작년 3분기 신규설립 | |
| 합계 | 8961 | 7491 | 38.4% |

자료: 코웨이 IR보고서

단위: 억 원, %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

보세창고 20년의 역사, RLC가 한발 더 나아갑니다

무역 통합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인도네시아 보세창고 20년 역사의 RLC가 그 동안 축적된 운용 및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업무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보세창고 업무는 물론 해외 및 국내외 물류, 산업 원부자재 구매 및 판매대행, 통관 등 각종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보세창고 무역대행 구매
통관·배송 재고관리 지사업무



산업 원부자재
구매 대행



인니 물류의 대명사
짐모아가 함께 합니다!



WE DELIVER
EVERYTHING, EVERYWHERE!

EXPERT IN TRANSPORTATION

업무통합

Z
ZIMMOAH

영세기업 생산지원



정부는 영세 자영업체 MSME 를 돋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세기업 생산지원 BPUM (Bantuan Produktif Usaha Mikro)이 있다. BLT UMKM이라고도하는 BPUM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 중 하나는 비즈니스 인증서 (SKU-Surat Keterangan Usaha)를 보유해야 한다. SKU는 2021년 온라인으로 MSME 를 등록한 소규모 및 소규모 기업가가 소유 할 수 있다. UMKM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민의 생계와 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으로 MSME에 등록하는 방법은 투자조정청(BKPM)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oss.go.id/portal/informasi/content/punjuk_mikro_kecil. 인허가증은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으로 적용된다.

한국 작년 성장률, 15개 주요국 3위...인도네시아 4위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후퇴했지만 주요국 중에서는 3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성장률은 중국 2.3%, 노르웨이 -0.8%에 이어 15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인도네시아 -2.1%, 스웨덴 -2.8%, 미국 -3.5%, 일본 -4.8%, 독일 -5%, 프랑스 -8.2% 순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9.9%, 스페인은 -11%였다.

관광 등 서비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는 코로나19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충격이 덜했다. OECD는 지난해 12월 세계 50개 주요국의 2021년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2.8%로 29위다.

OECD는 중국이 올해 8% 성장, 50개국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2월 물가상승률 0.1% 감소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지난 두 달 동안의 월별 인플레이션이 감소한 반면, 2월은 0.1%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고 3월 1일 발표했다.

수하리안토 BPS 국장은 3월 1일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상승은 약간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인도네시아가 0.05%의 디플레이션을 보인 4분기 초반 이후 인플레이션 추세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전화

대사관 대표전화 021-2967-2555

대사관 대표팩스 : (62-21)2967-2556,2557

영사과 대표전화 : (62-21)2967-2580

영사과 대표팩스 : (62-21)2967-2581

당직전화 연락처 : (62)811852446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전화번호 : +62-21-521-2515

+62-21-521-2474

팩스 : +62-21-521-2486

메일 : innehaninhoe@gmail.com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SELATAN 12950
[CONSULAR SECTION 4TH FLOOR]

경제

ESN바이오, 전세계 최초 '코로나19 IMMUNOTEX' 원천소재 개발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싸움을 해왔으며, 생존경쟁에서 이겨왔던 것은 바로 인류의 면역력이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인류를 습격한 코로나19바이러스에 지금까지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1억명이 넘는 감염자와 24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음에도 아직도 그들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인 ESN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으면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면역조절 효능이 있는 100% 천연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해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에 이어 섬유 의류를 통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혁신 제품으로 평가 받으며 세계 특허를 달성했다. ESN바이오가 개발한 100% 천연바이오 섬유용 소재는 '항바이러스 + 바이러스 감염면역도움' 효능의 섬유를 탄생, 의류산업에 혁명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특허기술정보조사를 통해 전세계 선행특허와 비특허 문현상, 섬유 적용이 가능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면역조절효능이 있는 'TNF-a'와 'IL-6' 억제 효능의 항바이러스 조성물은 ESN바이오가 개발한 천연 항바이러스 조성물이 세계 최초의 특허기술이라는 기술검증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외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얻게 됐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인류를 습격한 이후 전세계 과학자들은 코로나19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 의과대학원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해 인체 내 호중구수가 과활성화 될 경우 염증반응을 일으켜 폐 손상을 입고 심한 호흡기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으로 발전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호중구수 억제 효능이 있는 COPD치료제인 테사메타손이 중증치료제 개발에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의과대학원과 생명과학과 연구진은 코로나19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TNF(종양괴사인자)와 IL-10이 중증환자에 특히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사이토카인 폭풍이 과잉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이어 일본의 오사카대학교와 하비카노 의료센터 연구팀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중증의 호흡 장애를 가진 코로나19 환자들에게 IL-6, IL-8, IL-10, MCP-1, 플라스미 노겐 활성 억제 인자(PAI-1)가 높은 수

치로 측정되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IL-6 신호전달을 막는 '토실리주맙(tocilizumab)'이라 불리는 항체기반의 약을 주입한 결과 PAI-1 수치가 감소했으며, 중증도 호전됐다고 밝혔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이러스 면역 도움의 'IMMUNOTEX'

상용화 시, 대한민국 섬유 의류 산업 발전 획기적, 혁명적 전기

이와 같이 TNF-a 억제제와 IL-6 억제제, 호중구수 억제제 효능의 치료제 등이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위험을 낮추어주고 입원과 응급 치료의 위험을 낮추어준다는 연구와 임상 사례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중소벤처기업이 하나의 섬유 용 소재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원인 인자인 TNF-a, IL-6 억제 효능이 있는 소재를 개발, 이를 섬유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평가된다."면서 "백신과 치료제 이외에 인류가 코로나19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대한민

33% 감소한다는 임상결과를 발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는 텍사메타손이 코로나 환자 사망률을 18-36% 감소하여 전 세계 코로나 환자 65만명을 살렸다는 발표를 했다.

IL-6억제제인 토실리주맙(제품명: 약템라)의 경우 영국 리맵-캡 연구팀이 코로나19환자 792명을 대상으로 임상연구결과 코로나19환자들의 사망 확률이 24% 감소, 네델란드 자우더란드 병원 연구진이 코로나19 환자 중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사이토카인 환자 사망률을 64% 낮췄으며, 미국 하버드대학 테이비드 리프바사 연구팀이 미국 68개 병원 집중치료실의 코로나 중증환자 3,924명을 대상으로 의료기록 분석결과 코로나중환자 사망률을 30% 감소시킨 것

ANTIVIRAL-IMMUNOTEX용 ESN의 7가지 핵심기능

세계최초, 항바이러스-면역조절도움 원천소재



100% 천연소재 | 5Zero (무색·무취·무알콜·무방부제·무화학물질) | 화학바인더 미사용 | 300°C 열안정성

<ESN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IMMONOTEX의 7가지 효능>

COVID-19의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어폐될 문화를 창조, 천연바이오소재를 아웃도어, 골프 의류, 아동복, 레깅스 등 평상복은 물론 수술복, 간호사복, 의사복, 환자복 등 의료용 의류에 적용할 경우 바이러스와 함께 일상 생활이 가능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지며, 우리나라 섬유, 의류산업을 대조군 대비 약 50% 감소했으며, IL-6 인자를 약 50% 감소, 호중구수를 약 28%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ESN바이오가 개발한 바이러스 감염면역도움소재는 COPD 모델 질환 동물실험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원인인자인 TNF-a 인자를 대조군 대비 약 50% 감소했으며, IL-6 인자를 약 50% 감소, 호중구수를 약 28%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결과치(효능)는 의약품 레벨 이상의 수준으로 아웃도어, 골프의류, 의료용 의류업체와 협력

국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입증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SN바이오, 바이러스 감염면역 도움 소재 코로나 시대 획기적 전기 마련

한편, 최근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임상연구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원인 인자인 'IL-6', 'TNF-a' 과다발현 억제와 '호중구수의 과활성' 억제 효능이 있는 COPD치료제인 텍사메타손, IL-6억제제인 토실리주맙(제품명: 약템라/로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통풍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고 중증으로 발현하는 증상을 낮춘 임상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정부주도 리커버리임상 연구진은 호중구수 억제제인 텍사메타손(COPD치료제)이 코로나 중환자 치명율을

캐나다, 미국, 브라질, 남아공 등 6개국 4,488 명의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임상에서 통풍치료제인 콜키신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상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 위험을 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콜키신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TNF-a억제제인 램시마의 경우 영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호중구수감소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2상)에 있다.

<국제섬유신문>

인도 덴탈 센터 전문치과병원 INDO DENTAL CENTER



면사 값 또 폭등 원단 밀 '패닉'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원면값과 면사 값이 또 치솟았다.

국제 원면 값이 급등한데다 F/W 용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국내는 물론 베트남, 인도산 면사 가격이 평달아 올라가고 있다.

특히 면사 값이 또 오르면서 바이어나 의류 벤더 틈에 끼여 있는 원단 밀들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눈덩이 적자를 고향 길이 없어 가쁜 한숨을 몰아 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 원면 가격이 이달 초순 파운드 당 70~72센트 선에서 설 연휴에 82센트 수준으로 속등한데 이어 90센트까지 강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인은 텍사스 지역 원면 재배면적이 5.4%정도 감소했다는 보도와 함께 투기 세력들의 농간이 재연되고 F/W용 성수기가 시작되고 있어 원면 값이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일부터 10일간 이어졌던 중국과 베트남의 설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생산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면사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더욱 상승

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득달같이 국내 면방사들이 원면 값 급등을 이유로 금명간 면사 값을 또 인상시킬 방침을 굳히고 있어 코마 30 수 기준 면사 값이 고리 당 740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면사 값은 작년 9월말까지 고리 당 500 달러 내외에 거래되다 10월 중국의 '묻지마 구매' 바람으로 한꺼번에 고리 당 100달

러가 껑충 뛰었고 다시 12월에 50달러 이상, 그리고 새해 초 다시 올라 고리 당 690~700달러를 형성하다 이번에 또다시 인상돼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4차례나 인상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면방업계는 "국제시세에 맞춘 가격이다"고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나 베트남에 면사 재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면사 값의 연속적인 급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통 바이어들이 의류나 원단 값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고 있어 중간에 끼 원단 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면 니트 생산 원단 밀들은 10월부터 면사 값이 이미 40%나

폭등해 실질 원단 제조 원가가 이미 20%나 상승된데 반해 타겟·콜스·캡등 미국의 유통 바이어들이 겨우 원단 값을 3%인상에 그치고 있고, 월마트는 그나마 한 푼도 올려 주지 않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단을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단 밀들이 거래하고 있는 의류 벤더들은 "바이어가 가격을 올려 주지 않아 원단 값을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원단 밀들까지 적자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 연말까지 원단가격을 올리지 않던 홍콩의 중국계 대규모 원단 밀인 나이스다잉, 파운팅 셋, 퍼시픽, 까망 등도 1월 들어 일제히 원단 값을 올렸으나 한국 원단 밀들은 장기 계약 물량의 가격 반영을 못시켜 12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계약물량은 적어도 3월까지 눈덩이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섬유신문>

아시아 섬유·의류 연맹들 이니셔티브



방글라데시,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파키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 의류 및 텍스타일 산업 생산자 연맹들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게 됐다.

아시아 지역 6개 국가의 9개 텍스타일 및 가먼트 생산자 협회들로 이뤄진 STAR 네트워크의 관계자들이 "더 나은 구매 관행 (better purchasing practices)을 요청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위해" 최근 한데 모였다고 전했다.

STAR 네트워크는 방글라데시 가먼트 및 매뉴팩처러 어소시에이션(BGMEA), 방글라데시 니트웨어 매뉴팩처러 및 수출업자 어소시에이션(BKMEA), 차이나 내셔널 텍스타일 및 어페럴 카운슬(CNTAC), 가먼트 매뉴팩처러 어소시에이션 인 캄보디아

(GMAC), 미얀마 가먼트 매뉴팩처러 어소시에이션(MGMA), 파키스탄 양말류 매뉴팩처러 어소시에이션(PHMA), 파키스탄 텍스타일 익스포터스 어소시에이션 (PTEA), 타월 매뉴팩처러 어소시에이션 인 파키스탄(TMA), 베트남 텍스타일 및 가먼트 어소시에이션(VITAS)을 포함한다.

STAR 네트워크 대변인 미란 알리는 "이니셔티브의 유니크한 면모는 페이먼트와 딜리버리에 관한 구매 관행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이는 매뉴팩처러들과 이들을 대표하는 연맹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밀에서 위로 향하는 이니셔티브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브랜드와 바이어, 그리고 텍스타일 및 가먼트 생산자 양쪽으로 나뉘는 입장에 대해 "임밸런스"를 짚어보고자 하는 의도다. 코로

나19로 인해 특히 유럽과 미국의 브랜드 및 바이어들이 오더를 캐슬하며 이는 부각됐다.

2021년 3월까지 이들 어소시에이션들은 함께 다섯 개 워킹 그룹으로 나뉘어 협력하며 "레드 라인"을 정의하고, 페이먼트 및 딜리버리와 같은 토pike에 대해 요구사항과 주천사항 등을 정립하게 되며 정보 교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워킹 그룹들의 아웃풋에 따라 이니셔티브의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STAR 네트워크(Sustainable Textile of the Asian Region)는 2016년 독일 개발협력공사(GIZ)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GIZ는 패브릭 아시아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텍스타일 및 가먼트 산업에서 지속가능성 촉진에 힘쓰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들이는 한국 제약·바이오…이유는?

국내 제약사들이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인구수가 약 2억 7000만 명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제약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8조원에서 2023년 약 13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인허가 절차 과정이 까다로워 해외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인도네시아 제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까다로운 절차가 많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10월 모든 제품에 할랄, 비(非) 할랄 여부 구분을 의무화하는 新 할랄 인증법을 시행하면서 자국의 할랄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할랄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한다. 이슬람 국가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은 필수다.

다만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할랄 규정이 별도로 없어 식품 할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인증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려면 생산설비를 갖춘 현지 회사와 협력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당 의약품의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웅제약, 종근당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시설의 현지화 전략을 선택했다. 현재 두 회사 모두 공장과 의약품 할랄 인증을 마친 상태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2년 3월 인도네시아 현지공장 인피온과 조인트벤처를 설립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3년 착공해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에 대웅-인피온 공장을 완공했다. 2018년도엔 '대웅-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바이오연구소'(대웅 인니연구소)를 설립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에 맞는 바이오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겠단 의도였다.

대웅인피온은 지난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로부터 적혈구 생성인자(EPO) 제제인 '에포디온(성분명 rh-에리트로포이에틴 알파)'의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2017년 4월 출시했다. 출시 6개월만에 인도네시아 EPO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웅인피온은 에포디온의



허가 직후 할랄 인증을 위한 팀을 별도로 조직해 에포디온에 대한 할랄 인증을 준비해왔다. 이에 지난해 1월 적혈구 생성인자(Erythropoietin, EPO) 제제 '에포디온'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리폼 무이(LPPOM MUI)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같은해 5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아지에프외용액'도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아지에프외용액'은 지난해 3월 대웅인피온에서 자체 생산한 일체형 제형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그 후 2개월 만에 할랄 인증을 받는 평가를 이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신흥시장을 철저히 연구해 현지 니즈에 맞는 제품개발을 통해 신흥국 시장을 석권하는 현지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웅 인피온과 함께 이슬람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에포디온, 아지에프 할랄 인증을 발판 삼아 80조원 규모의 중동 의약품 시장에 진출해 전세계 많은 무슬림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제약사 오토와 합작법인 CKD-OTTO를 설립했다. 2016년 자카르타에서 50Km 거리에 위치한 치카랑 산업단지에 항암제 생산 공장을 착공해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GMP 승인을 획득했다. 2019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 결기구인 율레마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 최초 할랄 인증 항암제 공장으로 준공했다.

CKD-OTTO 항암제 공장은 30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해 연면적 1만 2588m² 규모, 지상 2층 건물로 건립됐다. EU-GMP(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관

리 기준) 수준의 시설을 갖췄으며 연간 약 16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다.

종근당은 제품 생산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이전해 시험생산을 완료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항암제 젬시타빈과 클리티셀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주요 항암제의 품목허가를 추가로 받아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한 상태다.

차세대 위식도여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을 보유한 HK이노엔은 동남아시아 1위 제약사 '칼베(KALBE)'와 손잡고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2023년 9월까지 인도네시아에 케이캡을 독점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미용·의료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일동홀딩스 계열사 일동히알테크는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 보건성에서 히알루론산 필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일동히알테크는 지난 2016년 분할 설립한 히알루론산 사업 전문 회사로 히알루론산 원료 및 의료용 필러 등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생체물질인 히알루론산을 피부 아래에 주입해 주름이나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에 볼륨감을 주는 제품이다.

이에 앞서 휴젤도 지난해 7월 히알루론산 피리인 '더채움 스타일' 4종 제품의 인도네시아 판매 허가를 취득했다. 휴젤은 현지 키터와 혜비유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휴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현지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의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ovie schedule can change at any time

www.cgv.id CGV Kreasi @CGV.ID @CGV_ID

KB부코핀은행, 'KB금융' 이미지 반영 CI 공개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부코핀은행이 KB금융그룹의 로고가 반영된 새로운 기업 이미지(CI)를 공개했다. 국민은행과 부코핀은행 간 시너지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코핀은행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새로운 CI를 선보였다. KB금융의 이미지가 들어갔고, 기업을 대표하는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됐다.

앞서 부코핀은행은 지난해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변경을 결정했고, 지난 9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며 사명 변경을



완료했다.

리반 푸완토노 부코핀은행 회장은 "KB부코핀은행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해 기업 역량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KB 브랜드를 통해 지난 몇 달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

업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소규모기업(SME) 금융, 소매금융 등에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선진 디지털 역량을 접목해 부코핀은행을 현지 상위 10위권 은행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국민은행을 비롯해 앞서 진출한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캐피탈 등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코핀은행은 4년 내 자기자본을 30조 루피아(약 2조 3670억원) 이상으로 늘려 부쿠(BUKU) 4 등급 대형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LH·KT·KIND, 버카시에 데이터센터 구축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옥에서 KT, KIND와 '인도네시아 버카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사업 공동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버카시 산업단지는 LH가 지난 해 12월부터 현지 로컬사업주,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 추진 중인 해외 산업단지 사업으로, 산업과 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산업도시로 개발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KT와 체결한 '글로벌사업 개발 협력 협

약'의 후속으로, 버카시 산업단지에 KT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데이터센터 건설부지와 기반시설 제공, KT는 데이터센터 설비 구축 및 관리, KIND는 사업 구조화 및 타당성조사, 금융자문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은 실무협력단을 구성해 기관별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버카시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앱케이션로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삼 LH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LH가 가진 해외 건설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KT, KIND와 적극 협업해 버카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술 투자법 대통령령으로 길 터

Jokowi Tekan Perpres Investasi Miras, Pemprov Sulut Tunggu Aturan Teknis



조코위 대통령이 알콜 음료에 대한 투자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북부 술라웨시 주 정부가 현지에서 생산된 Cap Tikus(쥐 상표) 술을 수출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알콜 음료 투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고 말했다.

투자관리국 원스톱 통합 서비스 사무소(DPMPTSP)장은 "우리가 알콜 음료를 수출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먼저 식약감독청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2월 27일 말했다.

Cap Tikus(쥐 상표)의 술은 야자수 종류인 아렌 나무의 열매 줄기로 부터 나오는 액체로 되어진 술이다. 미나하사족의 전통 술이며 현지에서는 사구 에르(saguer)라고 부른다. Cap Tikus(쥐 상표) 술은 발효 종류된 술이다.

투자관리국 원스톱 통합 서비스 사무소는 "이전에 술 생산과 판매 허가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령이 있으므로 인허가를 받기 쉽게 될 것이다. 이제 술 사업으로 농부들의 소득도 늘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관리국 원스톱 통합 서비스는 술 사업 허가에 대한 구체

적인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다.

북부 술라웨시 주의회 투쟁민주당(PDIP) 대표는 "앞으로 정부가 북부 술라웨시 주에 투자를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부 술라웨시 주에 쥐 상표의 술 농부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Novita Rewah 북부 술라웨

시 주의회 의장은 "술 산업을 위한 투자 허가가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이 북부 술라웨시 주에서 사업 할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발리 개방 준비… 종사자 백신먼저



발리 정부가 관광객에게 걸어잡근 벳장을 풀 계획이다. Wayan Koster 발리 주지사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발리 Covid-19 전염 위험이 최소화된 지역을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해양 투자 조정부 장관도 발리 관광 감소를 고려하여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발리 관광지 개방은 관광객에 대한 새로운 규정, 즉 건강 프로토콜에 대한 별금 부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발리 관광 새로운 규정은 1) 건강 프로토콜 실행 2) 건강 프로토콜 모니터링 3) 건강 프로토콜 위반 적발 4) 위반자 행정 처벌 및 추방 등 단계를 구상하

고 있다.

이에 관광 종사자에 대한 발리 백신 접종도 준비하고 있다. 발리 관광 사태는 거의 1년 동안 마비된 관광 부문을 부활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관계 당국은 설명했다. 발리 주지사는 "발리 주에서 관광 부문 개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고 운영의 핵심 High Rack !!!

•고객 맞춤 설계 •최적의 창고효율 •합리적 가격 •신속한 설치

튼튼합니다. 깔끔합니다. 설치하면 효율이 올라옵니다.

메자닌 랙 Mezzanine Rack



다품종 소량재고 관리용, 적층랙

더블딥 랙 Double Deep Rack



표준완제품 다량보관, 복렬랙

실렉티브 랙/Selective R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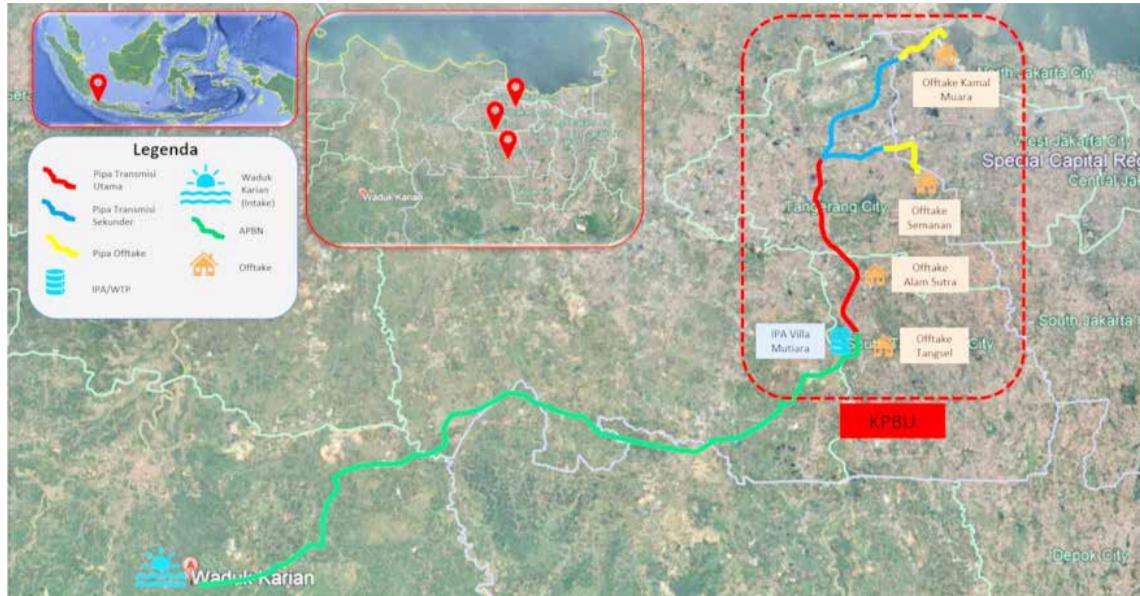
롤원자재/표준완제품 팔레트 보관용, 단렬랙

쉘빙 랙/Shelving Rack



롤원자재 No Pallet 보관용, 선반랙

'1800억' 인니 상수도 사업자, 내달 선정 수자원공사 수주 '유력'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주를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까리안-세르퐁 광역 상수도 개선 프로젝트의 사업자가 내달 말 선정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주를 지원해온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내달 중으로 까리안-세르퐁 광역 상수도 공사의 사업자 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달 안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서부와 주변 지역의 상수

도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는 2조2000억 루피아(약 1740억원)다. 내년 착공해 2022년 완공이 목표다. 공사가 끝나면 이 지역 주민 16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아디 까르야(PT ADHI KARY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 수주에 나섰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소관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2017년

11월 까리안-세르퐁 식수 공급

시스템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이듬해 수자원공사가 최초 사업제안권자 지위를 획득했고 지난해 인니 정부가 시설 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공공사업주택부는 자카르타 동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자티루후르1 상수도 사업 이외에 추가로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사업주택부는 "자카르타 식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도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두 개의 새로운 사업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THE GURU>

중국 두 차종 Wuling과 DFSK… 누가 더 잘팔리나?

중국 두 차종인 Wuling과 DFSK가 인도네시아에 뛰리를 내린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지배를 무너 놓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협회(Gaikindo)에 등록 업체인 중국산 Wuling과 DFSK. 그럼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한 해동안 얼마나 팔렸을까? 누가 더 많이 팔았을까?

인도네시아에서 Wuling차는 실제로 DFSK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 Wuling 자동차는 MPV (Cortez 및 Confero), SUV (Almaz) 및 상용용 (Formo) 세그먼트가 다양하다.

DFSK차는 SUV (Glory i-Auto, Glory 580 및 Glory 560), 상용용 (Gelora 및 Super Cab)에만 집중하고 있다.

Wuling차는 2017년 첫 해 3,268대 판매를 기록했다. DFSK차는 2018년 839대를 판매했지만 다음해 DFSK 판매량은 3,260대로 급증했다.

Wuling차는 2020년 9,532대 판매 기록으로 베스트셀러 브랜드 9 위에 올랐으며, 이는 닛산 7408 대를 앞지르고 있다. 하지만 DFSK는 2,424대의 판매를 기록했다.

2020년 가장 인기있는 중국산



<Wuling Confero>

- 모델은 Wuling Confero S이다. 3,060 unit
- 2. Wuling Almaz: 1,947 unit
- 3. DFSK Supercab: 1,346 unit
- 4. Wuling Cortez: 1,253 unit
- 5. Wuling Formo: 321 unit
- 6. DFSK Glory 560: 266 unit
- 7. DFSK Glory i-Auto: 198 unit
- 8. DFSK Glory 580: 76 unit
- 9. Gelora: 61 unit

<경제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은 디지털 통화라고 불리는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공식화했다.

중앙은행 Perry Warjiyo 총재는 비트코인 등 갈수록 대중화되고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Perry 총재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도소매 방식을 통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에 유통될 예정이다.

Perry 총재는 25일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해 다른 시중은행들과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루피아 이외의 다른 통화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에서의 결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

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루피아라는 한 가지 통화밖에 없습니까. 동전이나 지폐, 디지털 화폐 등 모든 결제수단은 루피아를 사용해야 하며, 그 운영 권한은 중앙은행에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비관한 개인이나 주체가 만든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결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통화의 디지털 표현으로, 디지털 시대에 중앙은행의 통화 책임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통화와



예금을 동반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이 결제 보안, 금융

위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핀테크 결제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자화폐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보증인으로 발행되며, 전자화폐는 민간이 은행에서 루피아를 보증으로 사용하여 민간부문에서 발행하는 지불 수단이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인도 준비은행(RBI)도 암호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2018년 비트코인을 금지한 RBI는 불법 결제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은 암호화폐이며, 마약상이나 태러리스트 등 무법자들이 사용해왔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할 수 없었다. 디지털화폐 사용자는 이 제품을 투자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정보기술에 기반한 지불 수단을 제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중앙은행은 통화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공격과 같은 수많은 사이버 보안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은 5년 전에도 있었으나, 적절한 보안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전력이 있다.. <경제부>

PT. HD FORKLIFT INDONESIA
Hyundai Official Agent

All that HYUNDAI Forklift

- 7년차 판매, 서비스, 임대
- 최단기간 한인기업 300개사 돌파
- 영구 무상 정기점검 서비스 제공
- Project Rental 가능

{인도네시아 정부 공급실적}

- 인도네시아 항만청
- 해군 수라바야 본부
- Inalum Aluminum
- Waskita Construction
- PLN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 | |
|---------------------------|-------------------------|
| Battery Reach (Seat Type) | 1.4 ~ 2.5ton : 4 Models |
| Mast Height | Max. 12m |

| | |
|----------------------------|-------------------------|
| Battery Reach (Stand Type) | 1.5 ~ 2.5ton : 7 Models |
| Mast Height | Max. 7.5m |

| | |
|------------------------|-------------------------|
| Diesel / Gasoline Type | 1.5 ~ 25ton : 60 Models |
| Mast Height | Max. 7m |

| | |
|------------------------|------------------------|
| LPG/Gasoline Dual Type | 1.5 ~ 7ton : 25 Models |
| Mast Height | Max. 6m |

| | |
|------------------------|------------------------|
| Battery C/Balance Type | 1.6 ~ 5ton : 11 Models |
| Mast Height | Max. 6m |

PT. HD FORKLIFT INDONESIA

Marketing PIC : Ms. Ayu (0812-8597-2720)
After Service PIC : Ms. Sarah (0812-9468-3991)
Korean Desk PIC : Mr. Park (0821-2534-3214)

Korea Style Service
프로그램

바로서비스
BMR

매월 1회 무상경기점검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부품공급 48시간 이내 완료

무상보증기간 1년 또는 1,500시간
Free Rental 납기지연, 부품지연시 무상렌탈
구형지게차 매입서비스

Rukan Avenue, Cluster Alamanda Blok 8-135 RT 07 RW 14, Jakarta Garden City, Cakung, Jakarta Timur, DKI Jakarta, 13910, Indonesia | 021 2287 4165, (Mail) : hyundaibagus@gmail.com

"750만 재외동포 중요 자산… 재외동포청 설립 시급"

국회 토론회서 동포사회 "더 미워서는 안 된다" 한목소리

귀중한 자산인 750만명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콘트롤타워인 '재외동포청'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월 25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상당수 참석자들이 이같은 목소리를 쏟아냈다.

토론회에는 설훈·노웅래·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사장, 정부 각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200명은 줌(Zoom)으로 함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 정책과 조직'을 주제로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원장은 "2007년에는 3천 900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시대에 750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다. 이미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1만여 개에 달하는 세계 한인 단체와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콘트롤타워를 맡을 정부 조직으로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 또는 재외동포처나 재외동포청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

에서 9번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전부 유야무야됐다"고 소개했다. 또 동포 관련 업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하다 보니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박종범 전 유럽한인 회총연합회 회장은 "외교부 산하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경우 업무 조정과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제안했다.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전담기구가 정책 수립과 실행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하급 기구인 청금 조직으로 만들 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임 원장은 위원회나 처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실효 가능성이 높은 청을 설립한 후 점차로 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줌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동포들을 전담기구 설치 움직임에 환영하면서도 단순히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매년 재외동포청 설립을 건의해 왔고 여야 의원들도 동조해왔음

에도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토론회가 공염불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청이 세워지면 한반도 평화통일과 대한민국



<국회서 재외동포청 설립 모색 토론회> 2월 25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을 알리는 동포사회의 공공외교 역량도 확대될 것"이라고 반겼고, 나은숙 미국 LA 민주주의 운영 위원은 "재외동포도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한 부분임으로 재외동포청을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여기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담기구 설립이 재외동포를 위한 선심이 아니라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허인욱 미국 재외동포처신설추진위원장은 "재외동포를 위해 모국이 뭘 해주어야 한다는 선심성

으로 동포청 설립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며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고 경제영토를 확장해온 개척자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설규정 민주평통중국청도협의회 회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세워진 1997년 당시와 현재의 재외동포 위상은 천지 차이로 여기에 걸맞은 기구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견의했다.

토론회에 줌으로 참여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각국 동포들이 참여한 것을 보듯이 재외동포와 국내동포 간 물리적 거

리는 사실상 없어졌다"며 "통합 기구 마련에 여야의 공감대가 크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의원은 토론회를 종합하면서 "재외동포사회와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이 외교적 마찰 우려와 부처 간 업무 조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더 늦출 수 없다"며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정부, 중소기업 정부 조달 참여 폭 넓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부 조달사업 참여 한도를 현행 25억 루피아에서 150억 루피아로 대폭 증액하면서 중소기업의 정부 조달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2021년 2월 중순에 발효된 대

통령령 제12호/2021호 '정부물품·서비스 조달'이 발효된 후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가 넓어졌다.

Roni DwiSusanto 정부물품구

매정책 국장은 새로운 규정은 중소기업이 정부 재화와 용역을 조

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

다면, "이 규정이 COVID-19 팬

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12호/2021호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혜택을 제

공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또 재화·서비스 조달 계

약에서 각 부처와 국가기관이 계

약한도 증액 외에 지역의 중소기

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예

산의 40%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

고 있다. 각 부처, 정부 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도 전자 조달 카

탈로그에 중소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국영기업(SOE)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조달 계약에 참여할 수도 있다.

2020년 8월, 국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조달청 등은 중소기업 디지털 마켓(MSME Digital Market) 또는 Pasar Digital(PaDi) 플랫폼, 중소기업(MSME) 웹사이트를 시작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부 및 국

영기업의 지출 거래를 위한 미디어다. 이용 가능한 품목에는 음식, 건설 자재, 사무용품, 기념품 및 상품이 포함된다.

한편, 중소기업이 국영기업과 정부에 제

공하는 서비스에는 운송 서비스,

교육 및 교육, 여행 및 숙박, 건

물 임대 등이 포함된다.

상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 증가하면 인도

네시아 전역의 약 400만 중소기

업의 매출과 거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와 국영기업의 계약은 순환되며 보증이 있다.

그러나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품질과 수량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도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수입품만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국내 제품 시장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 활성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하는 중국 전기스쿠터 업체가 동남아 최대 스타트업 '고젝'과 스쿠터 공급 계약을 추진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니우(Niu) 테크놀로지스'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차량 공유·배달 플랫폼 기업 고젝에 시범 운행을 위한 스쿠터를 보내고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리 앤 니우 CEO는 "현재는 전체 스쿠터 판매량의 95%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전 세계로 판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생산 능력도 2배로 확장해 올 하반기부터는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스쿠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젝은 2010년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으로 음식배달, 택배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만 1억 명에 달

하고, 미국의 구글과 비자, 중국의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고젝과의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일본 혼다와 야마하가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오토바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겠다는 전략이다.

니우가 지난해 판매한 이륜차는 60만 대로 전년 대비 43% 성장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 흐름을 타고 니우가 주력하는 전기스쿠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오프라인 매장도 600개 이상 추가로 늘리는 등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니우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파나소닉 등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는다. 니우가 제품 생산과 시장 공략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배터리 공급사들도 추가 수주 등 의 호재가 기대된다.

Traveloka, 뉴욕증시 전 태국·베트남에 서비스 시작



동남아 최대 여행 스타트업인 인도네시아의 트라블로카(Traveloka)가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백지수표회사로 불리는 특수목적법인(SPAC) 상장을 앞두고 25일 태국과 베트남에서 금융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다.

오피스피디아와 중국의 정동닷컴이 투자하는 트라블로카는 9년 전 설립돼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수요가 현재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카이사르 인드라 트라블로카

CEO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트라블로카의 베트남 사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태국에서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악의 상황 이후 이제 우리는 2021년에 대한 준비를 잘 해두었다. 국내 여행이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인드라 CEO는 "더 많은 소비

자들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편 테크에 큰 폭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2020년 말 여행사업이 수익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월간 4천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트라블로카는 태국과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후 후불 결제"를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인드라는 "최근 태국 최대 은행 중 한 곳과 협작투자기업을 설립해 편테크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면서 "국내 경쟁사가 적은 트라블로카도 베트남의 잠재 파트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온 트라블로카의 서비스는 고객들이 여행 예약을 위해 월급날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미 6백만 건 이상의 대출을 용이하게 했다.

지난해 트라블로카는 일부 인도네시아 대출업체들과 함께 '페이어레이터(Paylater)'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보험과 재산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인드라 CEO는 "모든 음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인도네시아 벤처기업 이스트벤처스의 지원을 받는 트라블로카는 인도네시아에서 현

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성장 시켰고, 레스토랑 바우처와 음식 배달 서비스는 물론 신속한 코로나19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트라블로카는 미국에서 상장을 위해 SPAC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드라 CEO는 "동남아에 대한 호평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미국 상장(IPO)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동남아 성장 스토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 제약사 피리담 파마, 한국 진출

인도네시아 제약회사 피리담 파마(Pyridam Farma Tbk)이 서울에 새 둥지를 틀고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피리담 파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한국 대표 사무소를 마련했다. 작년 11월 사무소 설립에 대한 주주 승인을 얻어 지난 24일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1976년 설립된 피리담 파마는 일반 처방약과 건강 보조제, 피부미용 제품, 의료용 장비 등을 생산해왔다. 작년 10월 호주 박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제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박신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다.

피리담 파마는 신규 거점을 토대로 국내에서 제약 사업을 활

발히 펼치며 해외 영토를 확장할 예정이다. 올 초 3000억 루피아(약 238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이미 실탄도 확보했다.

알디라시타증권, 시나르마르 증권이 주관하고 KB국민은행의 자회사 부코핀은행이 채권 수탁을 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4조3100억원으로 2018년(23조1175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의약품 생산실적은 22조3132억원으로 같은 기간 5.7% 뛰었다. 5년 간 연평균 성장률 7.1%를 기록해 전체 제조업 성장률(2.4%)의 3배에 달했다. KDB산업은행 미래 연구소는 국내 의약품 시장이 2030년 37조677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기업 주도 백신접종 계획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접종 속도를 높여 조속히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 등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Gotong Royong)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보건부장관령*을 발표(2.26)함

* 코로나 19 팬데믹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 실시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21년 10호

○ 민간기업 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돋기 위해 도입되며, 정부계획과 중복되지 않으며 어떠한 상업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

□ 주요 내용

① 정부 시행 백신접종 프로그램(Vakinasi Program)과 민간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Vaksinasi Gotong Royong)을 통해 무료로 백신을 접종

② 민간주도 프로그램의 접종 대상은 민간기업의 직원, 가족 및 가족관계자

* 현재까지 6,600여개 기업이 민간주도 백신 프로그램을 신청

③ 백신수요(정부+민간)에 관한 계획은 보건부장관 결정에 의함

④ 민간주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백신은 정부접종 백신과 달라야 함

* 공기업부장관은 시노팜, 모더나 백신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

** 백신수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시노팜 백신은 3~6월, 모더나 백신은 7~10월)

제1장 총 칙

제1조 (용어 정의)

5.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Gotong Royong)이란 법인/사업체의 직원, 가족 및 가족과 관련이 있는 기타 개인에게 백신접종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비용은 법인/사업체가 부담한다.

제3조

(1) 코로나19 백신접종(Vaksinasi COVID-19)은 중앙정부가 실시한다.

(2)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주정부 및 군/시정부 그리고 법인/사업체를 참여시킨다.

(3) (1)항과 (2)항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백신접종 프로그램(Vaksinasi Program) 또는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Gotong Royong)을 통해 실시된다.

(4) (3)항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접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무료로 접종한다.

(5) (3)항의 코로나19 백신 피접종자인 직원, 가족 및 가족과 관련이 있는 기타 개인에게 접종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무료로 접종한다.

제4조

코로나19 백신접종의 목적: 코로나19 확산을 감소시키고 집단면역에 이르기위함 (이하 생략)

제5조

백신접종 실시 규정의 범위 : 백신수요, 접종대상, 공급, 접종실시, 유관기관 협력, 접종 사후 관찰, 소통전략, 기록·보고, 재원, 교육·감독 (이하 생략)

제2장 코로나 19 백신수요 계획

- 제1절 일반사항

제6조

(1) 코로나19 백신접종실시를 위해 백신접종 프로그램(Vaksinasi Program)과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Gotong Royong) 대상자수를 근거로 백신수요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2) (1)항의 코로나19 백신 수요예측을 위해 법인/사업체는 상부상조 백신접종 대상이 되는 직원, 가족 및 가족과 관련이 있는 기타 개인의 인원수를 보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2)항의 보고서에는 적어도 인원수, 이름, 주소(by name and by address), 주민번호(NIK)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4) 백신수요에 대한 계획은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에서 정한다.

(5) (1)항의 백신수요에 대한 계획은 전염병 확산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및 국가경제회복위원회(PEPEN)'의 자문을 근거로 한다.

(6) (1)항, (4)항의 백신수요에 대한 계획은 백신접종 프로그램과 상부상조 백신접종 실시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구매, 보조장비, 물류 등에 참조자료가된다.

(7) (6)항의 백신접종 프로그램과 상부상조 백신접종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구매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제2절 백신의 종류

제7조

(1)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정관결정(보건부)으로 정한다.

(2) (1)항의 백신종류는 제6조의 코로나19 백신수요 계획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3) (1)항의 백신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식약청(BPOM)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또는 유통허가번호(NIE)를 받아야 한다.

(4) 상부상조 백신접종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종류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제3장 코로나 19 백신접종 대상자

- 제1절 최우선 접종대상자와 요건

제8조

(1)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백신 확보 현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2) (1)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시 백신지침(indikasi vaksin)과 국가면역전 문가위원회(Indonesia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zation) 및/또는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전략자문그룹(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GE WHO)의 연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요건을 정한다.

(3) (1)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에 따라 최우선 접종대상자 그룹은 아래와같이 정한다.

- a. 보건인력, 의료보조인력, 의료서비스시설(Fasilitas Pelayanan Kesehatan)에 근무하는 지원인력
- b. 고령자 및 공공서비스 인력
- c.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 d. 기타 국민
- (4)~(5)항 생략

제9조

(1) 제8조 (3)항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kelompok prioritas penerima Vaksin COVID-19)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백신접종 프로그램(Vaksinasi Program)을 통해 실시한다.

(2) (1)항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의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Gotong Royong)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인도네시아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공관·대표부 및 국제비영리기구는 백신접종 프로그램 또는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Program atau Vaksinasi Gotong Royong)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절 코로나 19 백신접종 우선지역

제11조

(1) 코로나19 백신접종 우선지역은 보건장관이 정한다.

(2) (1)항의 우선지역이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높은 주/군/시 지역 및 특별 고려사항을 적용한 주/군/시 지역이다.

(3)항 생략

제3절 접종대상자 정보수집·관리

제12조

보건장관은 제8조와 제11조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수를 결정한다.

제13조

(1) 제12조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수를 결정하기 위해 백신접종 프로그램과 상부상조 백신접종 참여자의 정보를 기록한다.

(2) (1)항의 접종대상자 정보기록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수립을 통해 실시된다.

(3) (1)항의 접종대상자 정보수집결과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통합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Satu Data Vaksinasi COVID-19)에 등록한다.

(4) (3)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의 이름, 주소(by name and by address), 주민번호(NIK)이다.

제14조 (생략)

제4장 코로나 19 백신 배포, 지원장비, 물류

- 제1절 일반

제15조 (배포 지침 생략)

- 제2절 배포 실시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1) 생략

(2) (1)항의 코로나19백신 배포는 PT Bio Farma 또는 보건부장관이 코로나19 백신 구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인(사업체)을 직접 지정하여 할 수 있다.

(3) PT Bio Farma는 (1)항의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위해 제3자와 협력할 수 있다.

(4)~(6) 생략

제19조

(1) 상부상조 백신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PT Bio Farma가 각 법인/사업체와 협력하는 민간/사업체 의료기관으로 배포한다.

(2) PT Bio Farma는 (1)항의 코로나 19 백신 배포를 위해 제3자와 협력할 수 있다.

⑤ 인도네시아에서 공무 중인 외국공관 대표부 및 국제NGO는 정부 프로그램 및 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음

⑥ 백신 배포는 Bio Farma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 할 수 있으며, 민간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백신은 Bio Farma가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사립 의료시설에 배포

* 민간주도 상부상조 프로그램에 의한 백신접종은 사립 의료시설에서만 실시

⑦ 민간프로그램의 백신접종 서비스 비용의 상한은 보건부장관이 정함

⑧ 정부 또는 민간 프로그램에 의해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은 백신접종카드 또는 전자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접종기록은 통합정보시스템(Satu Data Vaksinasi Covid 19)에 등록됨

(참고) 백신접종시행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21년 10호

『코로나 팬데믹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실시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21년 10호』

코로나 팬데믹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실시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20년 84호를 대체하는 법령임. (2020년 84호 장관령은 폐지)

제정일: 2021.2.24.

시행일: 2021.2.25.

제32조

(1) 백신접종 프로그램 또는 상부상조 백신접종을 통해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카드(kartu Vaksinasi COVID-19) 또는 전자 백신접증명서(sertifikat elektronik) 형태의 확인서를 수령한다.

(2) 여행목적 이동자(pelaku perjalanan)의 필요시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는 국제백신접증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CV)에 기재한다.

제6장 코로나 19 백신접종 실시를 위한 협력

제33조 (생략)

제34조 (생략)

제7장 코로나 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및 조치

제35조 (생략)

제36조 (생략)

제37조 (생략)

제38조 (생략)

제39조 (생략)

제40조 (생략)

제8장 소통 전략

제41조 (생략)

제9장 기록 및 보고

제42조

(1) 코로나19 백신접종(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상부상조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모든 의료시설은 반드시 접종에 대해 기록하고 보고해야한다.

(2) (1)항의 기록과 보고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코로나 19 백신접종 통합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Satu Data Vaksinasi COVID-19)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실시한다.

(3) (2)항의 전자방식의 기록과 보고가 어려운 의료시설의 경우 수기방식으로 전달된다.

(4) 의료시설 또는 군/시 보건청 직원은 (3)항의 수기방식으로 전달된 내용을 군/시보건청의 설계를 이용하여 코로나 19 백신접종 통합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Satu Data Vaksinasi COVID-19)에 입력한다.

제10장 재원



코웨이 제품·가격 안내



코웨이 정수기 | 샤워 필터

13L 넉넉한 용량에
UV살균 램프부터 절전 기능까지



**OMBAK
CHP-7310R**
카운터탑 냉온 RO 정수기

월 400,000 Rp. x 60개월
월 500,000 Rp. x 36개월
w34 x D52 x H52 cm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는
11L 냉온 RO 정수기



**VILLAEM II
CHP-18AR**
카운터탑 냉온 RO 정수기

월 340,000 Rp. x 60개월
월 430,000 Rp. x 36개월
w34 x D52 x H52 cm

21L 대용량으로
사무실부터 중소 사업장까지



**CORE
CHP-671R**
스탠딩 냉온 RO 정수기

월 420,000 Rp. x 60개월
월 520,000 Rp. x 36개월
w37 x D49 x H126 cm



코웨이 공기청정기

강력 서큘레이터 기능부터
15평형 청정 성능까지 담은



**STORM
AP-1516D**
HEPA 필터 시스템

월 220,000 Rp. x 60개월
월 270,000 Rp. x 36개월
w41 x D24 x H76 cm

미니사이즈로 아이방에 쑥
10평형 공기청정기



**BREEZE
AP-1018F**
HEPA 필터 시스템

월 200,000 Rp. x 60개월
월 240,000 Rp. x 36개월
w37 x D18 x H64 cm



코웨이 샤워필터

깐깐하게 거른 물로
싱크대부터 샤워까지 즐겨보세요



**CLEAN WASHER
BD01**
싱크대 샤워용 필터
DIY 교체형

일시불
1,500,000 Rp.
w25 x D11 x H28 cm

코웨이 제품·서비스



Q. 인도네시아에서도 렌탈로 판매하나요?

36개월 혹은 60개월 무이자 약정할부 구매 계약을 통해 코웨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매 계약 시 제품의 소유권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도 렌탈로 판매하나요?

구매 계약 시 1개월 선납과 자동이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간편한 신청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결재를 권장 드립니다. 은행계 자동이체는 BCA, BNI, BRI, Mandiri 가 가능합니다.

Q. 월 비용 외에 코디 관리 서비스, 필터 교체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하나요?

월 비용 안에 2개월 1회 코디 위생관리 서비스, 필터 교체 및 AS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동안 1회에 한해서 제품 이전설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주기는 필터별로 상이합니다. ※ 정수기 설치 후 필터의 조기 막힘 현상이 지속 발생하면 추가 필터 교체는 유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무상 AS 서비스는 정상 사용 조건에서 발생하는 고장에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 수질환경에서 코웨이 정수기 물을 믿고 마셔도 될까요?

코웨이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R&D 센터를 통해 현지 원수수질 분석과 정수기 성능 테스트를 오랜 기간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 코웨이 역삼투압(RO) 필터 시스템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설치 시 별도 신청을 통해 수질분석 서비스 또한 제공해드립니다.

Q. 가격 할인 프로모션이 있나요?

보다 자세한 제품 구매 상담과 프로모션 프로그램은 한국인 전문 상담 데스크로 연락주세요!

0811 9294 114 koreandesk@coway.id

PT. Coway International Indonesia

Sequis Tower, Lantai 17, Jl. Jenderal Sudirman Kav. 71, Jakarta Selatan 12190

1500070

www.coway.id

Coway Indonesia

[@coway_id](https://www.instagram.com/coway_id)

PT. Coway International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